



# 제7회 한-중 정책학술회의 第七届 中韩政策学术会议

## 세계질서 변화와 한중관계 全球秩序变化与中韩关系

2020. 11. 12<sup>Thu</sup> 14:00~18:00

장소 ZOOM Webinar

주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

중국 북경대 중외인문교류연구센터

후원 김구재단

# 제7회 한-중 정책학술회의 第七届 中韩政策学术会议

## 세계질서 변화와 한중관계 全球秩序变化与中韩关系

2020. 11. 12<sup>Thu</sup> 14:00~18:00

장소 ZOOM Webinar

주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

중국 북경대 중외인문교류연구센터

후원 김구재단

\* 학술회의를 목적으로 한 비공개 책자이므로, 원문 인용시 반드시 저자의 사전 허가를 받아 함.

\*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 T. 031-219-3861 H. <http://ucpi.ajou.ac.kr> E. [minhui1212@ajou.ac.kr](mailto:minhui1212@ajou.ac.kr)

## 초대의 글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는 2014년 9월 중국정책연구소로 설립한 이후 그간 한중 양국의 협력과 발전을 목표로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한-중 정책학술회의]는 본 연구소가 주관하는 가장 중요한 국제세미나로서 매년 가을에 꾸준히 개최하였습니다. 한중이 사드(THAAD)문제로 인해 갈등이 극대화되고 상호 간에 교류가 거의 중단되었던 시기에도 이 세미나만큼은 개최되었습니다. 이 회의는 한중 주요 당국자들의 주목을 받으면서 양국 간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 데 일익을 담당했습니다.

2020년에는 뜻하지 않게 Covid-19가 발생하여 우리 삶의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제 세계는 Covid-19 이전과 이후의 세계로 명확히 구분될 것 같습니다. 2019년에 세계적인 차원으로 확산된 '미중 전략경쟁'은 Covid-19로 인해 더욱 격화되었습니다. Covid-19로 인한 국제질서 전반에 미친 충격은 아직도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그 충격의 폭과 깊이는 국제 질서의 보다 본질적인 변환을 내포하는 듯합니다. 당장은 이번 정책학술회의도 Offline에서 Online회의로 바뀌었습니다.

미국 대선의 결과로 그간 미중 전략경쟁을 주도해 왔던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행정부로 바뀔 듯합니다. 미국 대외정책에 있어서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바이든 시대에도 미중 전략 경쟁은 지속될 것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그 수준과 결과를 논하기에는 변수도 많고 불확실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 국제질서에 순응하여 안보와 경제발전을 구가하던 한국에게는 커다란 도전입니다. 주변 강대국들도 각자도생의 길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새로운 외교·안보·대북 정책의 모색이 필요한 시점에 도달했다고 보여집니다.

북한 비핵화의 문제 역시 미중 전략경쟁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미중 전략경쟁시기에 북한 비핵화는 더 이상 미국과 중국의 대외정책 우선순위가 아닐 것입니다. 미중은 이 사안을 어떻게 미중 전략경쟁에 더 적절히 활용할지를 고민할 개연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북한의 비핵화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합니다. 더구나 북한은 지속적인 대남 군사력 강화를 통해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에 대한 대응책을 찾아야 합니다. 이 문제는 한중 간에 대단히 민감한 사안입니다.

이 도전 과제들은 우리의 운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사안들입니다. 대응책을 찾기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기존의 질서관, 제도, 규범, 패턴 등이 훼손되면서 국제정세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강화되고 예측도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비단 한국만이 받는 도전은 아닐 것입니다. 중국 역시 그 당사자이자 동시에 영향을 받는 위치에서 외교·안보 정책의 갈림길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기에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주요 행위자인 한국과 중국의 전문가들이 모여 상호 관심사를 심도 깊게 논하고 공동의 이익을 찾아가는 과정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합니다. 자그마한 오판과 물이해가 언제든지 심각한 충돌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들을 잘 극복하고 바람직한 한중 관계를 설정하기 위해서라도 한중은 상호 전략적 소통을 견지해야 합니다.

한중의 전문가들이 각기 화상으로 이번 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회의는 이미 중국 주류 학자로 성장한 초기 참가자분들은 물론이고, 꾸준히 신진학자들을 발굴하여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그간 쌓아 올린 양측의 신뢰를 바탕으로 회의가 양적인 측면 못지않게 질적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유사시 이 회의는 한중 양측의 전략적 소통 채널로도 대단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연구소가 금년 9월 미중정책연구소로 개명을 한 이후 미국 George Washington 대학측과 공동 주관으로 한미 정책학술 화상회의를 이미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제7차 한중 회의는 중국 북경대 중외인문교류연구센터와 공동으로 주관합니다. 중국 측은 국가 차원에서 인정과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회의가 한중의 주요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소통하면서, 상호 이해를 확대하는 주요한 계기가 되기를 다시 한번 희망합니다. 점점 더 혼란스럽고, 불확실한 국제 질서 속에서 한중 관계를 보다 안정적이고 협력 지향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데 미약하나마 일조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 소장**

**김 흥 규**

## 邀 请 函

亚洲大学中美政策研究所的前身是2014年9月成立的亚洲大学中国政策研究所，我们一直致力于促进中韩两国关系的合作与发展。本所最为重要的活动就是于每年秋季举行的“韩-中政策学术会议”。在中韩两国因萨德（THAAD）问题矛盾激化，相互交流几乎中断的时期，我所召开了这一学术会议，从而获得两国主要政府当局人士的关注，为增进中韩两国之间的相互理解，献出了一份绵薄之力。

2020年一场突如其来的“新型冠状病毒肺炎（Covid-19）疫情（以下简称为“新冠疫情”）”给我们的生活带来了翻天覆地的变化。当下世界可以明确地划分为新冠疫情发生前和发生后。2019年扩散到全球范围内的“中美战略竞争”因新冠疫情而进一步激化。目前新冠疫情带给国际秩序的冲击还无法估算。这一变化除了广度与深度超越了我们之前所经历过的水准，还包含更为本质的国际秩序转换。因此，本届学术会议也由线下会议改成线上会议。

美国大选结果也意味着中美战略竞争的主导者将由特朗普政府变成拜登政府。美国的对外政策也会迎来重大改变。多位专家认为拜登时代中美战略竞争仍会持续，但是其水平和结果会有很多变数和不确定性。这对于顺应原有国际秩序，谋求安全与经济发 展的韩国而言，是一个巨大的挑战。周边强国步入各自逃生之路。韩国也到了有必要摸索新的外交、安全和对朝政策的关键时刻。

朝鲜无核化问题也受到中美战略竞争的极大影响。在中美战略竞争的大背景下，朝鲜无核化将不再是美国和中国的对外政策优先顺位。中美很有可能考虑如何将此问题更加适当地运用于中美战略竞争。这使得朝鲜无核化的前景更为黯然。而且，朝鲜持续不断地强化对峙韩国的军事力量，借此来威胁韩国的安全。韩国应寻找此问题的出口。此问题是中韩两国的敏感话题。

这些具有挑战性的课题都是会影响到我们命运的非常重要的问题。应对策略也很不容易寻找。究其原因在于，原有的秩序观、制度、规范、模式等受到损坏，国际局势的不稳定性和不确定性不断强化，难以预测。这种挑战不仅仅是韩国所面临的问题。中国也作为当事者，站在受到影响

波及的立场上，正处于对外交安全政策做出选择的岔道口。这一时期，韩国和中国是东亚·西太平洋地区的主要行为者，两国专家汇聚一堂，深刻地讨论彼此关注的问题并寻求共同利益的过程，比任何时候都显得更为重要。微小的误判和不理解随时都会演变成严重冲突。即使是为了克服这些挑战和保持良好的中韩关系，双方也要保持战略沟通。

中韩两国的专家将利用各自的视频摄像头，参加本届学术会议。本届学术会议不仅邀请了中国主流学者，还发掘并诚邀新晋学者参加。凭借双方积累的信任，本会议的量 and 质都取得了长足的进步。必要时，本会议可以成为中韩双方战略沟通的渠道。

我所自今年9月更名为中美政策研究所之后，曾与美国乔治华盛顿大学一起主办过“韩美政策学术视频会议”。中方得到了国家层面的认可和支持。再次希望本次会议能够成为中韩两国主要专家加强交流、加深相互理解的契机。希望在日益复杂、充满不确定性的国际秩序中，我们能为寻求更加稳定和强化合作的中韩关系方向，献出一份绵薄之力。

亚洲大学中美政策研究所所长

金兴圭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 제7회 한-중 정책학술회의

## 프로그램

일시: 2020년 11월 12일 (목요일) 14:00-18:00

장소: ZOOM Webiar

주제: 세계질서 변화와 한중관계

주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 중국 북경대 중외인문교류연구센터

후원: 김구논단

### 14:00~14:30 개회사

**한중대표** 김흥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 소장, 왕동 북경대 중외인문교류연구센터 소장대행

**축사** 문정인 청와대 외교·안보 특별보좌관

위홍진 중공중앙대외연락부원부부장, 북경대 중외인문교류연구센터 상임고문

천진환 김구재단 부이사장

### 14:30~16:00 Session I 미중 전략경쟁 전망과 미중 대응에 대한 평가는?

**사회** 왕동 북경대 중외인문교류연구센터 소장대행

#### 발표

(한국측)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전 외교부 정책기획관

부형욱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행정관

(중국측) 장원링 중국사회과학원연구위원, 산둥대학국제문제연구원원장

주 평 남경대학교 국제관계연구원장, 중국국제관계학회 부회장

#### 토론

(중국측) 장징첸 산둥대 동북아학원, 국제문제연구원 부원장 및 교수

리춘푸 남개대학 아시아연구센터 부주임, 한국연구센터 부주임, 교수

치하오텐 북경대 중외인문교류연구센터 비서장, 북경대 국제관계학원 조교수

(한국측) 김흥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 소장

이왕휘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신범철 한국국가안보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전 외교부 정책기획관

**16:30~18:00 Session II 미중 전략경쟁과 한반도?**

**사회 김흥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 소장**

**발표**

(한국측) 진창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전 세종연구소 소장  
전봉근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소장 대행

(중국측) 자칭귀 북경대 중외인문교류연구센터 주임, 북경대 국제관계학원 원장 및 교수  
공커위 상해 국제문제연구원 아태연구센터 주임

**토론**

(중국측) 정지용 복단대 조선한국연구센터 주임  
파오동신 연변대 국제정치연구소 주임, 연변대 국제정치학과 교수  
왕쥘성 중국사회과학원 아태연구전략연구원 연구원, 중국주변전략연구실 주임  
왕싱싱 상해 외국어대 한반도 및 아태전략연구센터 주임, 상해 외국어대 교수

(한국측) 배기찬 국립외교원 겸임교수 및 고문  
김진호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정환우 KOTRA 중국조사담당관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전 대통령실 긴급위기관리위원장

**회의 최종 발언**

(한국측) 김흥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 소장  
(중국측) 자칭귀 북경대 중외인문교류연구센터 주임, 북경대 국제관계학원 원장 및 교수



## 会议议程

日期: 2020年 11月 12日

中方 13:00-17:00

韩方 14:00-18:00

地点: ZOOM 会议

主题: 全球秩序变化与中韩关系

主办: 中国 北京大学中外人文交流研究基地

韩国 亚洲大学 中美政策研究所

韩国 金九论坛

### 13:00-13:30 开幕式

**中韩代表** 王栋 北京大学中外人文交流研究基地执行主任

金兴圭 亚洲大学 中美政策研究所所长

**祝词** 文正仁 韩国总统外交安全特别顾问, 韩国延世大学名誉教授

于洪君 中共中央对外联络部原副部长, 北京大学中外人文交流研究基地高级顾问

千辰焕 金九基金会副理事长

### 13:30-15:00 Session 1 如何评价中美战略竞争的前景以及中美应对措施?

**主持** 王栋 北京大学中外人文交流研究基地执行主任

**发表:**

**韩方** 李相贤 世宗研究所首席研究委员、前外交部政策企划官

夫炯旭 韩国国防研究院研究委员、前青瓦台国家安全室行政官

**中方** 张蕴岭 中国社会科学院研究员、学部委员, 山东大学讲席教授, 国际问题研究院院长

朱 锋 南京大学国际关系研究院院长、中国国际关系学会副会长

**讨论:**

**中方** 张景全 山东大学东北亚学院副院长、教授, 山东大学国际问题研究院副院长、教授

李春福 南开大学亚洲研究中心副主任、韩国研究中心副主任

祁昊天 北京大学中外人文交流研究基地秘书长、北京大学国际关系学院助理教授

**韩方** 金兴圭 亚洲大学 中美政策研究所所长

李王徽 亚洲大学政治外交系教授

申范澈 韩国国家安全战略研究院 外交安保所长、前外交部政策计划管

## 15:30-17:00 Session 2 中美战略竞争与韩半岛?

**主持** 金兴圭 亚洲大学 中美政策研究所所长

**发表:**

**韩方** 陈昌洙 世宗研究所首席研究委员、前世宗研究所所长

田奉根 国立外交院外交安保研究所执行所长

**中方** 贾庆国 北京大学中外人文交流研究基地主任、北京大学国际关系学院原院长、教授

龚克瑜 中国上海国际问题研究院亚太研究中心主任

**讨论:**

**中方** 郑继永 上海复旦大学朝鲜韩国研究中心主任

朴东勋 延边大学国际政治研究所主任、国际政治系教授

王俊生 中国社科院亚太与全球战略研究院研究员、中国周边战略研究室主任

王星星 上海外国语大学朝鲜半岛与亚太战略研究中心主任、教授

**韩方** 裴纪灿 国立外交院兼职教授、顾问

金珍镐 檀国大学政治外交系教授

郑焕禹 大韩贸易投资振兴公社中国调查担当官

车斗铨 峨山政策研究所首席研究委员、前总统室紧急企划管理部长

**会议总结发言**

**韩方** 金兴圭 韩国亚洲大学中美政策研究所所长

**中方** 贾庆国 北京大学中外人文交流研究基地主任、北京大学国际关系学院原院长、教授

# 축사

위홍진

(중공중앙대외연락부원 부부장, 북경대 중외인문교류연구센터 상임고문)

존경하는 전문가 및 학자 여러분,

중국과 한국의 저명한 전문가, 학자 여러분과 함께 온라인을 통해 '중미 관계와 동북아의 미래'라는 매우 중요하면서도 민감한 주제를 논의하고, 솔직하게 교류할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주제가 중요하다고 언급한 이유는 중미 관계가 현재 국제 관계에서 매우 광범위하고 큰 영향을 미치는 양자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중미 양국의 발전 수요는 긴밀히 얽혀 있고, 인문학적 교류는 깊이 어우러지며, 안보 이익은 서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양자 관계가 어떻게 발전하는지는 세계의 두 경제 대국, 즉 중국과 미국의 미래뿐만 아니라 지역 및 글로벌 문제에도 예측할 수 없는 연쇄 반응을 일으킬 것입니다. 최근 몇 년간 중미 관계의 급격한 변화가 세계 구도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합니다.

또한, 이번 주제가 매우 민감한 이유는 우리가 있는 동북아시아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정학적으로 가장 복잡하고, 전략적 구도가 가장 경직되고, 진영대결이 가장 뚜렷하고, 안보 상황이 가장 민감하며, 개발 문제가 가장 두드러진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1990년대 초 동서 냉전 종식 이후 동북아 지역의 중국과 소련은 북한을 지지했고, 미국과 일본은 한국을 지지하는 소지역 냉전 역시 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남북은 간헐적으로 접촉과 대화를 시작했고 미국은 한국에 배치된 핵무기를 철수했으며, 남북 양국은 동시에 유엔 회원국이 되면서 동북아 지역에는 한때 과거의 악감정을 씻어내고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가능성과 전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반도 정세 완화 과정에서 공존했던 북핵 문제는 매우 복잡한 대내외적 요인의 상호 작용과 중미 관계의 격변으로 인해 나날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세계가 제1차 세계대전 종식 이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중에서도 변동이 가장 크고, 변수가 가장 많으며, 변화를 가장 심한 곳은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의 내부 문제는 고질적이고 국제 문제를 처리하는 능력은 예전만 못해 미국의 패권적 지위는 흔들리고 있으며, 사회 전체의 전략적 불안과 공포를 초래하여 전 세계가 위태로워졌습니다.

트럼프는 백악관 입성 후 '아메리카 퍼스트'를 기치로 기존의 세계질서와 국제 관계 규범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그리고 전면적 부흥을 도모하는 중국을 최대의 전략적 경쟁 상대로 삼아 정치, 통상, 금융, 인문, 과학기술, 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전방위적으로 압박 및 억압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우선 ZTE(중싱통신)에 제재를 가한 뒤 '화웨이(华为) 죽이기'에 나섰습니다. 중국에 가공할 만한 관세 전쟁을 일으킴과 동시에 중국이 결코 타협할 수 없는 대만 문제에 도전하고 홍콩 문제에

도 손을 대며 '일국양제(一口一口)'를 파괴했으며, 남중국해에서 긴장을 고조시켜 중국의 안보와 주권을 노골적으로 위협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만들어낸 중미 관계의 '준(口)위기' 상황이나 '신냉전에 버금가는' 국면에서 중국은 강권 정치에 반대하면서도 상호 협력을 모색하는 건설적 입장을 견지했고, 상호 조율 및 협력 안정을 중미 양국 관계 발전의 기초로 삼았습니다. 인류 평화와 발전에 책임이 있는 세계 주요 2개국(G2)인 중국과 미국이 서로 존중하고, 함께 나아가고, 노력하고, 책임을 다해야만 중미 양국의 국내 문제를 해결하면서 여러 지역적·세계적 도전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중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나아가 전 세계의 평화 안정과 공동 발전을 실현해야만 꿈을 현실로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지난 1월 예상치 못한 코로나19가 발생하여 전 세계로 급속히 번지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COVID-19'로 명명하고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가 한때 '신종 코로나 폐렴'이라 이름 붙인 무서운 역병이 지난해 이미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발생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안타깝게도 당시 국제 사회는 이에 대해 아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인류에 대한 바이러스의 공격이 민족과 인종, 국가와 지역, 사회 제도와 경제 발전 수준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계 각국은 전례 없는 전 세계적 공중보건 위기에 직면했고, 이는 인류 사회가 직면한 최대의 생존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닥쳐온 전 세계적 문제와 대응하기 어려운 공동의 도전에 맞서 중미 양국은 반드시 과거의 앙금을 털어내고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야 하며, 다양한 국제 공조를 통해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함께 승리를 쟁취해야 합니다.

시험대에 오른 미국 정부는 불행하게도 강대국 정부가 마땅히 갖춰야 할 국제적 책임과 역사적 정서를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국의 필요 조치를 근거 없이 힐난할 뿐만 아니라 중국 인민들이 막대한 대가를 치르고 얻어낸 방역 투쟁의 성과를 악의적으로 헐뜯고, 중국에 '코로나19 진원지'라는 오명을 씌워 중국의 정치 제도와 통치 모델을 '오명화'하는 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또한, 중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소위 '책임 추궁', '손해 배상 청구'를 부추겨 미국이 선동하고 있는 대중(口口) 경제 '탈동조화'를 과학기술 교류, 금융 협력, 인적 교류 등 모든 분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한술 더 떠 대만 문제, 신장웨이우얼(위구르) 문제, 홍콩 문제, 남중국해 문제를 이용해 중국 내정에 간섭하고 지역에 긴장 분위기를 조성하며 이른바 최대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중국의 평화 발전과 부상이라는 역사적 진전을 방해하고, 국제 문제에서 계속해서 확대되는 중국의 역할과 영향을 상쇄하여 미국의 잘난 세계 패권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은 유엔 헌장의 정신과 가장 기본적인 국제 관계 규범을 파괴하는 것을 꺼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선진국을 끌어들이며 중국이 배제된 글로벌 산업 사슬과 공급 사슬을 구축해 세계 통상 구도에서 중국을 제외하려 합니다. 심지어 주요 7개국(G7)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신흥 국가를 끌어들이며 이른바 G11 혹은 G12를 형성함으로써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에서 중국을 고립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국제 사회가 지켜봤기 때문에 다른 사례를 더 다룰 필요도 없습니다!

미국 정부의 의도적인 소행과 고의적인 유도로 인해 3년 동안 악화 일로를 걸어온 중미 관계가

더욱 경색되고 복잡해지면서 중미 양국 간 격렬한 충돌로 이어지고 전면 대결로 치달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과 서방 국가, 심지어 전 세계의 관계도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국제 통상 구도와 세계 안보 질서는 지리멸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뜩이나 약한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는 완전히 붕괴할 위험에 처해있습니다.

중미 관계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우여곡절을 거듭하며 발생한 중미 간 역사적인 힘겨루기 싸움에서 앞으로 오랫동안 미국이 갈등의 중심에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국가 파워 측면에서 미국은 더 큰 우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많은 전통적 동맹국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미 간 마찰과 갈등은 항상 미국이 일으켰고, 미국의 책임이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단순하게 대응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로 맹목적인 양보나 타협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패권주의와 강권 정치에 반대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며, 미국과 중국의 공동 발전을 추진하고 양국이 이미 구축한 대화채널과 플랫폼을 활성화해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또한, 상호 존중과 포용, 구동존이(口口口口)의 대등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이권이 크거나 위기가 도사리고 있는 분야를 통제함으로써 양국 관계가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흔히 오늘날 세계가 대발전·대변혁·대조정의 시대를 맞이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국제 정세 발전의 불안정성·불확실성·불가예측성이 두드러집니다. 그러나 이것이 무조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며 때로는 희소식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지난해 초, 남북 관계가 크게 개선되었고 서로 위협을 가해왔던 양국은 협상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국제 사회를 괴롭히던 북핵 문제와 이와 관련된 동북아 정세 완화에 서광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현재 상황으로 볼 때 한반도 정세는 여전히 복잡하고 북핵 위기가 당장 해소될 수도 없으며, 동북아 지역 갈등의 중심인 북미 관계에는 여전히 많은 변수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북핵 문제에서 북한에 대한 미국의 압박은 계속될 것이고, 북핵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중국과 러시아 등 당사국들의 의지와 결심 역시 변함이 없기 때문에 핵 문제에서 북한이 완전히 역행할 가능성은 작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 양국은 힘들게 얻은 역사적 기회를 잡아야 하고, 동북아 국가와 국제 사회는 함께 노력하여 동북아 지역 정세를 더욱 완화해야 하며, 동북아 지역 각국은 경제, 금융, 과학기술, 인문, 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추진해야 합니다. 우선 중국이 제안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口口口口)' 국제 협력을 동북아 각국에 도입해야 합니다. 일대일로 국제협력 이니셔티브는 중국이 제안한 것이지만, 일대일로가 제공하는 발전의 기회와 건설의 성과는 전 세계, 특히 일대일로 건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국가와 지역의 것입니다. 그동안 일대일로라는 큰 틀에서 전개되는 국제 협력은 다주체·다방면·다각적·다차원적임이 증명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증명할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협력은 국가 간 및 각국 내 인프라의 상호 연계뿐만 아니라 선진 제조업과 고품질 생산설비의 해외 이전, 다양한 형태의 경제특구와 다국적 국제 공업단지 건설, 국경 무역과 해외 관광의 발전, 상호 간 기업 합병과 투자 촉진에 기여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협력을 통해서 국가별·지역별 거시 발전 전략의 연계, 구체적인 발전 철학의 연계, 정책·법규와 업계 기준의 연계를 실현하고, 다양한 발전 모델의 상호 교류 및 학습을 촉진하며 다양한 거버넌스 이념을 조율하고 소통을 이뤄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고 뜻 깊습니다. 동북아의 경우 관련 당사국이 사회체제의 차이와 이념 대립, 역사적 원한의 장벽을 뛰어넘어 각국의 이익과 요구를 전반적으로 고

려하고, 각국의 장점과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한다면 일본과 한국의 자본과 기술, 러시아와 몽골의 에너지와 자원, 중국과 북한의 시장 수요를 효과적으로 결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본과 한국 경제 활력 회복, 전면적인 북한의 경제 개방, 러시아 극동 시베리아 지역 개발, 중국의 동북 노후 공업지역 진흥에 함께 힘을 모을 수 있고 상호 협력과 연계 발전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경제 세계화가 어려움과 저항에 부딪히고 보호무역주의와 시장폐쇄주의가 구미(□□) 지역에서 대두되는 복잡한 상황에서 이러한 협력은 분명 지역 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하고, 호혜 상생의 새로운 구도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동북아 각국 그리고 미국을 포함한 모든 이해당사국은 아태지역의 평화발전과 인류사회의 공동운명을 위해 실질적인 노력과 기여를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시대적 소명이자 역사적 사명입니다!

# 祝词

于洪君

(中共中央对外联络部原副部长，北京大学中外人文交流研究基地高级顾问)

尊敬的主持人、各位专家、学者：

大家好！

我很高兴能有这样一个机会，同来自中韩两国的知名专家和学者线上聚会，共同讨论、坦诚交流《中美关系与东北亚的未来》这样一个异常重要，同时也极度敏感的话题。

我之所以说这个话题异常重要，是因为中美关系已经成为当前国际关系体系中影响极为广泛和深远的一对双边关系。中美两国发展需求紧密交织，人文交流深度融通，安全利益彼此攸关，相互关系如何发展，不仅事关世界最大的两个经济体自身前途，同时会对地区和全球事务产生难以估量的连锁反应。近年来中美关系剧烈变化对世界格局的深刻影响，已经充分证明这一点。

我这所以说这个话题极度敏感，是因为我们所在的东北亚，是二战结束以来地缘政治最复杂、战略格局最僵化、阵营对抗最分明、安全形势最敏感、发展问题最突出的一个地区。上世纪九十年代初东西方冷战宣告终结后，东北亚地区中国苏联支持朝鲜，美国日本支持韩国的次区域冷战形态开始缓解。北南双方断断续续地开始了接触与对话，美国撤走了部署在半岛南部的核武器，南北朝鲜同时成为联合国平等成员，东北亚地区一度出现捐弃前嫌，共谋发展的现实可能与前景。然而，与半岛局势缓和进程同时并存的朝鲜核问题，由于非常复杂的内外原因相互作用，竟然随着中美关系跌宕起伏而日趋复杂。

我们常说，世界正在面临第一次世界大战结束以来从未有过的大变局。而变动最大、变量最多、变幻最吊诡的，就是美国。美国内部问题积重难返，处理国际事务的能力今不如昔，世界霸主地位受到冲击，出现全社会性的战略焦虑和恐慌，整个世界因此变得动荡不宁。

特朗普入主白宫后，高举“美国第一”的旗帜，对现存世界秩序和国际关系准则发起全面冲击，将谋求全面复兴的中国作为最大战略竞争对手，试图要政治、经贸、金融、人文、科技、安全等所有领域，打压和遏制中国。先是制裁中兴公司，而后全力围剿华为公司，随着对中国发动骇人听闻的关税战，并且在台湾问题上挑战中方底线，插手香港事务破坏“一国两制”，在南海地区不断制造紧张局势，进而明目张胆地威胁中国的安全和主权。

面对特朗政府制造的中美关系“准危机”状态，或者说“亚冷战”局面，中方继续坚守既反

对强权政治又谋求平等合作的建设性立场，同时将协调合作稳定确立为两国关系未来发展的总基调。因为中方确信，作为当今世界两个最大的经济体，作为对人类和平与发展负有特殊责任的中美两国，只有相互尊重，相向而行，共同努力，共同担当，才能在更好地解决各自国内问题的同时，更好地应对各种地区性全球性挑战，亚太乃至全世界的和平稳定与共同发展，才能由理想变为现实。

然而，令人始料未及的是，今年1月，突如其来的新冠疫情大规模暴发，并且迅速蔓延全球。现在已经查明，这个被世界卫生组织命名为“COVID—19”，被中国卫健委暂时命名为“新冠肺炎”的可怕瘟疫，实际上去年很早就已经在包括美国在内的许多国家悄然来袭，遗憾的是国际社会当时对此一无所知。目前已经清楚的是，这种病毒对人类的攻击不分民族与种族，不分国别与疆域，也不论社会制度和经济发展水平。世界各国此次遭遇的，是百多年来未曾有过的全球性公共卫生危机，在某种程度上甚至可以说，是人类社会面临的最大一次生存危机。面对这个突如其来的全球性问题和难于应对的共同性挑战，中美两国理应捐弃前嫌，共克时艰，率先垂范地开展广泛国际合作，共同夺取迎战新冠疫情的全面胜利。

不幸的是，在这一重大考验面前，美国政府丝毫完全没有表现出一个大国政府所应具有的国际责任和历史情怀。美国不仅无端指责中国为抗击疫情而采取的必要措施，恶意诋毁中国人民用巨大代价换来的抗疫斗争成果，不遗余力地给中国戴上“疫源国”的帽子，不择手段地“污名化”中国的政治制度和治理模式，同时还鼓动国际社会对中国搞所谓“追责”“索赔”，把美国策动的对华经济“脱钩”引向科技交流、金融合作、人员往来等所有领域，变本加厉地利用台湾问题、涉疆问题、香港问题、南海问题干涉中国内政，制造地区紧张局势，搞所谓极限施压。

更令人匪夷所思的是，为了阻断中国和平发展与崛起的历史进程，为了对冲中国在国际事务中不断扩大的作用和影响，维护美国在不可一世的全球霸业，美国肆无忌惮地破坏联合国宪章精神和最基本的国际关系准则，试图拉拢所有发达国家，打造没有中国参与的全球产业链供应链，将中国排除在世界经贸格局，甚至企图以扩大七国集团的方式，拉拢新兴经济体搞所谓十一国或十二国俱乐部，将中国孤立于美国主导下的全球治理体系之外。所有这一切，国际社会有目共睹，我已经没有必要全部例举！

正是由于美国政府蓄意所为和刻意引导，三年来持续恶化的中美关系变得愈加紧张和复杂，中美双方发生剧烈冲突进而走向全面对抗的可能性在持续增大。受此影响，中国与西方国家乃至整个世界的关系也因此变得更加严峻。国际经贸格局与世界安全秩序变得支离破碎。本来就弱不禁风的全球治理体系，面临彻底瓦解的现实危险。

我深信，在中美关系经纬万端、曲折发展的历史性大博弈中，美国将长时间地处于矛盾的主要方面，这一方面是因为在实力对比方面美方拥有较大优势，有大量传统盟友，更重要的还在于，



中美之间的摩擦与冲突，总是由美方挑起，美方责任更大。面对这种情况，中方不会简单周旋，消极无为，一味退让妥协，而是要坚持反对霸权主义和强权政治，坚持以对话谈判方式解决矛盾冲突，继续推动美方与中国相向而行，努力激活并有效利用双方已经搭建的对话机制与平台，积极争取彼此尊重、相互包容、求同存异的平等合作关系，对存在重大分歧和蕴含危机的领域实行有效管控，尽一切可能防止两国关系跌入“修昔底德陷阱”。

我们常说，当今世界正处于大发展大变革大调整时期。国际形势发展的不稳定性不确定不可测性分外突出。这种不稳定不确定不可测性并非都是负面现象，有时也能带来利好消息。去年年初，半岛北南双方关系出现重大改善，朝美两国从相互威吓走到谈判桌旁。困扰国际社会的朝核问题，与此相关的东北亚局势缓和，曙光初现。当然，从目前情况看，朝鲜半岛的形势依然很复杂，朝核危机还不可能立刻解除，作为东北亚地区矛盾焦点的朝美关系，还存在很多变数，但美国在朝核问题上继续向平壤施压的做法不会改变，中国、俄罗斯及有关各方推动朝核问题政治解决的意志和决心不会改变，朝鲜在核问题上立场全面倒退的可能性因此不大。在这种情况下，半岛北南双方应紧抓住这来之不易的历史机遇，东北亚各方以及整个国际社会共同努力，积极推动东北亚地区局势进一步走向缓和，推动本地区各国在经济、金融、科技、人文、安全等各领域广泛开展务实合作，首先将中方积极倡导和大力推动的“一带一路”国际合作，引入到东北亚地区各国。一带一路国际合作的倡议是中国发出的，但“一带一路”提供的发展机遇和建设成果，却是属于全世界的，首先是属于那些积极参与“一带一路”建设的国家和地区的。实践已经证明并将继续证明一带一路大框架大格局下的国际合作，是多方位、多领域、多层次、多主体的。

这种新型合作，不仅有助于国与国之间以及各国内部基础设施互联互通，同时也有助于推动先进制造业和优质产能对外转移，建设不同形式的经济特区和跨国工业园区，推动边境互市贸易和跨境旅游向更高水平迈进，促进相互间的企业兼并与投资。更重要的是，通过这种新型合作，还可以实现不同国家不同地区的宏观发展战略对接、具体发展思路对接、政策法规与行业标准对接，促进不同发展模式的交流互鉴，实现不同治国理念的协调与沟通意义重大而深远。就东北亚而言，只要相关各方能够超越社会制度差异，超越意识形态对立，超越历史积怨鸿沟，统筹考虑各方利益与需求，充分发挥各方优势与潜能，我们就能把日本、韩国的资金和技术、俄罗斯与蒙古的能源与资源、中国与朝鲜的市场需求有效地结合起来，就能够在重新激发日本和韩国的经济活力、全面参与和推动朝鲜的经济开放、促进俄罗斯远东西伯利亚地区开发、振兴中国东北老工业区方面形成最大合力，实现最大限度的互利合作、联动发展。

在经济全球化遭遇困难和阻力、贸易保守主义和市场封闭主义在欧美抬头的复杂形势下，这样的合作无疑将打造出区域合作新范式，开辟出合作共赢新格局。东北亚各国和所有的利益攸关方，包括美国在内，都有责任和义务为亚太地区的和平发展，为人类社会走向命运与共，做出实实在在的努力和贡献。这是时代的期待，是历史的重托！

## 미국 대선 이후 미중관계 전망

## 美国大选后的中美关系前景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전 외교부 정책기획관

李相贤

世宗研究所首席研究委员、前外交部政策企划官

# 미국 대선 이후 미중관계 전망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전 외교부 정책기획관)

- 2020년 미국 대선은 미국의 장래와 국제질서의 미래가 여러 가지 의미에서 '기로'에 선 상황에서 개최
  - 유례없는 치열한 접전과 혼란 끝에 조 바이든 후보가 사실상 승리함으로써 미국은 '리셋 2.0' 시대를 맞게 됨.
  -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의 향후 부침을 가르는 선거 - 미국 우선주의의 지속 vs. 전통적 미국 외교로의 회귀 사이에서 기로에 선 선택
  - 더욱 중요하게는 이번 선거는 미국 민주주의의 중요한 테스트 - 트럼프 집권 이후 더욱 극심해진 정치적 분열 속에서 선거 과정의 관리를 둘러싼 민주주의 역량의 위기를 초래했고, 민주주의의 모범 국가라는 role model 이미지의 실추 심각, 내전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혼란상을 노정
  - 코로나19 이전부터 시작된 글로벌 거버넌스·다자주의의 퇴조, 전후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지탱해온 레짐의 붕괴 등 기존 추세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선거
  
- 바이든 캠프가 제시한 정강은 과거 민주당의 전통적인 어젠다들을 거의 다 반영
  - 외교정책과 관련한 내용은 정강의 가장 마지막 부분인 '미국의 리더십 혁신' 부분에 포함. 외교의 중요성 강조, 동맹관계의 복원, 국제제도의 존중, 해외 개발원조 활용, 군사력 강화와 21세기형 변환, 초국가적 도전에 대한 국제적 대응 조율, 기후변화, 신기술, 비확산, 테러리즘,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미국의 이익 증진을 위한 지역별 전략을 언급
  - 아시아 정책은 핵심 동맹인 한국, 일본, 호주 등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태국, 필리핀 등도 협력을 확대를 언급. 그리고 이들 동맹들과의 협력, 그리고 대북 외교를 통해 북한 핵프로그램이 제기하는 위협을 봉쇄하고 지역 도발을 억제한다고 지적
  
-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프에 비해 바이든 후보는 전반적인 외교정책의 기초로서 미국의 리더십 회복을 매우 강조
  - 바이든은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글로벌 위협에 대처하는 데 있어서 미국의 리더십을 포기했고 미국을 강하게 하고 국민을 단합시키는 민주적 가치로부터 멀어지게 했다고

## 비판

- 그래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첫 임무로서 미국의 민주주의와 동맹관계를 복원하고, 미국의 경제적 미래를 보호하며, 미국이 다시 세계를 리드하게 하겠다고 천명
- 구체적으로 세 가지 어젠다를 강조했는데, 첫째, 국내에서 민주주의를 혁신, 둘째, 미국 중산층을 위한 외교정책 추진, 셋째, 국제사회 리더의 자리로 복귀
- 바이든의 어젠다는 민주당의 대체적인 외교정책 방향성을 반영하고 있는 바, 트럼프 집권 4년 동안 외교 편협, 일방주의, 실패한 외교로 미국의 동맹관계를 영망으로 만들었고, 이제 동맹관계를 재건해야 할 때라고 주장

### ○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해도 미국 우선주의와 대중국 강경노선은 유지될 전망

- 미국 역사에서 뿌리깊은 백인 정체성의 정치가 트럼프 시대를 거치면서 미국 사회의 전 반적 특징으로 정착 - 이번 대선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48%를 득표, 트럼프즘의 영향력이 건재함을 재확인
- 누가 대통령이 되든 세계화로 인한 미국내 피해 계층, 특히 러스트 벨트의 노동 계층을 외면하기는 어려운데, 이들 대부분은 교육 수준이 낮은 백인 중산층
- 바이든도 결국 China Hawk이기 때문에 대중국 강경론은 지속될 전망 - 트럼프, 바이든 상관없이 중국 위협론, 포용정책 실패론을 공유하기 때문에 미중 패권경쟁은 지속될 전망

### ○ 미국의 초당적 대중국 시각은 지난 5월 백악관이 발표한 대중국 보고서에 잘 드러남.

- 중국에 대해 협력보다는 공개 압박과 봉쇄전략 등 '경쟁적 접근(competitive approach)'을 하겠다는 신냉전 선언
- 오늘날 중국이 제기하는 도전은 전방위적인 바, 첫째, 우선 경제적으로는 중국이 취하는 국가주도 보호무역주의와 국가자본주의의 위험성, 둘째, 미국적 가치에 대한 도전, 셋째, 안보적 도전을 포함

### ○ 이러한 현실을 감안한 미국의 대중국 전략은 우선 미중관계의 본질이 전략적 경쟁 (strategic competition)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미국의 국익을 방어하는 것이라고 지적

- 중국이 자유롭고 개방적인 규칙기반 국제질서를 더 약화시키려는 추가적인 행동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
-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닉슨도서관 연설은 미중관계가 이제 본격적인 패권경쟁으로서 가치

경쟁, 체제경쟁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

- 중국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미국 조야의 광범위한 인식으로서 공유되고 있으며, 바이든 행정부의 시각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추정
- 다만 중국을 대하는 레토릭과 접근방식에 있어서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트럼프처럼 직접 중국을 압박하는 대신 동맹과 우방국들의 연대를 통한 다자적 압박으로 중국을 다루겠다는 입장
- 미중관계에서는 규칙기반 국제질서의 유지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이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 - ex)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 인도-태평양전략과 쿼드, 북한 비핵화 협력, 투명하고 공정한 통상정책, 글로벌 거버넌스 협력 등

# 美国大选后的中美关系前景

李相贤

(世宗研究所首席研究委员、前外交部政策企划官)

○ 在美国与国际秩序的未来走向歧路之际，迎来了2020年美国大选。

- 在激烈程度远超历届的拉锯战和混乱中，民主党总统候选人约瑟夫·拜登胜利在望，从而美国即将开启“Reset 2.0时代”。

- 决定美国全球领导力未来的选举——是选择坚持美国优先主义，还是选择回归美国传统外交。

- 更重要的是，本届选举是对美国民主主义的重大考验——特朗普总统执政后，加剧了政治分裂，从而迎来选举管理的民主主义危机，民主主义国家典范的形象严重受损，甚至导致内战一触即发。

- 这是一场决定是否保持新冠疫情爆发前就出现的全球治理和多边主义衰退，支撑战后自由主义国际秩序的体系崩溃等原有态势的选举。

○ 拜登阵营的竞选政纲几乎涵盖了过去民主党的所有传统议题。

- 政纲的最后一部分“美国创新领导力”中涵盖了外交政策。强调外交的重要性、修复同盟关系、开启对外开发援助、提升军事实力和加强21世纪军事力量、合作应对跨国挑战、气候变化、新技术、核不扩散、恐怖主义、民主主义和人权，还有增进美国利益的各地区战略。

- 关于亚洲政策，加强与韩国、日本和澳大利亚等核心同盟国的关系，扩大与泰国、菲律宾等国家的合作。通过与盟国的合作和对朝外交，封锁和遏制朝鲜核威胁和地区挑衅行为。

○ 特朗普总统奉行美国优先原则，而拜登候选人则多次强调修复美国全球领导力的外交政策。

- 拜登候选人批评特朗普总统应对新的全球性挑战时，放弃了美国的领导力，背离了壮大美国、团结国民的民主价值观。

- 因此，拜登候选人阐明当选总统后，首先后恢复美国的民主主义和同盟关系，保护美国经济的未来，重新带领美国领导世界。

- 主要强调3个议题：第一，对内创新民主主义；第二，采取有利于中产阶级的外交政策；第三，恢复美国的全球领导地位。

- 拜登候选人的议题反映了民主党的大体外交政策走向，并主张在特朗普总统执政的4年里，

因为采取外交诋毁、奉行单边主义以及失败的外交导致美国的同盟关系风雨飘摇，因此需要立即重建同盟关系。

○ 拜登政府上台后，仍会保持美国优先主义和对华强硬态度

- 美国历史上根深蒂固的白人认同感在历经特朗普时代后，已经成为美国社会的特色——本届大选特朗普总统的得票率为48%，再次证明了川普主义的巨大影响力。

- 无论这届大选花落谁家，都无法回避全球化的美国国内受害群体，尤其是“锈带蓝领”，他们大多数是教育程度低的白人中产阶级。

- 拜登也是对华鹰派（China Hawk）成员之一，从而对华强硬或持续——无论是特朗普总统，还是拜登候选人，都会共享“中国威胁论”和包容性政策的失败教训，从而中美霸气竞争或将持续。

○ 今年5月，白宫发布了一份《美国对中华人民共和国的战略方针》报告，充分展现出美国各党派对华态度的殊途同归。

- 与其和中国合作，不如公开施压和采取封锁战略等竞争性接触（competitive approach）的新冷战宣言。

- 目前中国提出全方位的挑战。第一，首先经济方面，中国国家主导的贸易保护主义与国家资本主义的危险性；第二，挑战美国价值观；第三，安全挑战。

○ 美国基于这种情况，制定对华战略，首先承认了中美关系的本质是战略竞争（strategic competition），并采取适当的方法捍卫国家利益。

- 不再容忍中国试图弱化基于自由和开放规则的国际秩序的一切行为。

- 美国国务卿庞培在尼克松总统图书馆发表的演讲中指出，中美霸权竞争正进入白热化阶段，且拓展到价值竞争和体制竞争。

○ 对中国的这种认识在美国朝野获得广泛支持，估计拜登政府也是万变不离其宗。

- 但是，拜登候选人对中国的修辞和接触方式会有所不同。不会像特朗普总统一样直接向中国施压，而是加强与盟国和友邦之间的合作，采用“多边施压”的策略。

- 中美关系将围绕维护基于规则的国际秩序与其他热点问题，展开激烈争论。例如，南中国海的航行自由，印度-太平洋战略和“四方安全对话”，朝鲜去核化合作，公正透明的贸易政策以及全球治理合作等。

미중 전략경쟁 시기 미국의 군사적 대응  
---한반도 전략상황에의 함의

中美战略竞争时期的美国军事行动  
---朝鲜半岛战略情况的含意

부형욱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행정관

夫炯旭

韩国国防研究院研究委员、前青瓦台国家安全室行政官



# 미중 전략경쟁 시기 미국의 군사적 대응

## -한반도 전략상황에의 함의

부형욱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행정관)

2019년 3월, 세 번째 ‘현존하는 위험 위원회(Committee on the Present Danger)’가 출범했다. 미국의 안보 커뮤니티에서 영향력 있는 학자 및 전문가들이 결성한 민간단체다. 중국 위협론을 강하게 부각시켰다. 미국의 국가이익이 중대한 기로에 섰을 때마다 창설되어 활발한 활동을 했던 이 위원회의 상징적 의미를 잘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미국 내 대중국 위협론은 시간이 지날수록 거세지고 있고, 이에 대한 민주·공화 양당의 입장이 거의 일치한다. 지난 5월 백악관이 내 놓은 ‘대중국 전략보고서’도 전례 없는 강도로 중국을 몰아붙였다.

미중 전략경쟁이라는 큰 판이 있고, 북핵 위협이라는 작은 판이 돌아가며, 그 위에 한국의 안보가 놓여있다. 미중 전략경쟁과 북핵 문제의 판이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순간 큰 변화가 일어난다. 그때 주요 행위자들이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력 균형의 변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중국이 지난 10여 년 동안 군비증강을 꾀했다. 북한 역시 핵 개발에 매진했다. 앞으로 몇 년 간은 미국의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잠자코 지켜보던 미군이 대응 조치에 나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미군의 움직임은 진즉 시작됐다. 미국이 2019년 8월, 중거리핵전력조약(INF)을 파기한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향후 본격화 될 미군의 움직임은 한반도 전략상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제 한국의 안보·국방 커뮤니티는 이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 언론을 통해 알려진 미군의 움직임 중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3개 정도다. 조만간 주한미군에 F-35가 배치된다는 점, 미국 내에서 전술핵 재배치를 열망하는 한국 보수진영에 동정적인 여론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 INF 파기를 계기로 사정거리가 긴 프리즘(PrSM) 미사일의 한반도 배치를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 그것이다. 북한이 도발적 행동을 한다면 미군은 계획하고 있는 군사조치를 앞당길 것이다. 이는 아태지역에서 미중 간의 군비경쟁이 본격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미중 전략경쟁과 북핵 고도화가 맞물리면서 상황이 빠르게 변모하고 있다.

그동안 여러 전문가들은 비핵화 과정에서 북한이 도발적 행동을 할 가능성을 상정해야 하며 북한이 제기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지를 하이브리드 위협 관점에서 논의했다. 북한은 외교적 문제 일으키기, 공포심 조장, 불법행위를 통한 압박, 법체계·법적 합의를 활용한 법률전, 미디어전 등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그런데 일정 정도의 선을 넘는 도발적 행동이 미중 전략경쟁의 맥락에서 문제가 된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아무런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이래 북핵 협상 교착 상황에서 크리스마스 선물 운운하며 2019년 연말을 보냈고, 올해 전반기에 단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지속하다 지난 6월에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북한의 도발적 행동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한반도를 미중 전략경쟁의 발화점으로 만들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ICBM 또는 SLBM 시험발사 등과 같은 선을 넘는 도발을 하면 미국은 조만간 중거리 미사일 배치 카드를 꺼내들지 모른다. 동맹국과 미 본토와 주한 미군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사드 배치의 후폭풍보다 더 곤혹스런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북한이 깊이 생각해서 움직여야 하고, 우리도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미중경쟁이라는 수레바퀴에 깔리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눈과 귀를 틀어막고 제 갈 길만 가려고 고집할 것 같아 걱정이다. 가만히 있으라 설득해야 한다. 미국과 중국이 진검 승부를 준비하고 있는데 옆에서 칼춤을 추는 격이 된다. 정신 차리고 보면 발밑이 천 길 낭떠러지임을 북한은 직시해야 한다.

한편 우리는 미국에 대해 좀 대담해 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 북핵에는 같이 대응하되 중국 견제에 우리를 연루시키는 데는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 일종의 강온 양면전략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온전히 우리 국익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중국은 물론이고 미국을 향해서도 우리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조만간 미국의 중거리미사일 문제가 매머드급 안보 현안이 될 것이다. 그 때를 대비하여 아무도 우리를 흔들지 못하게 할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

# 中美战略竞争时期的美国军事行动

## ——朝鲜半岛战略情况的含意

夫炯旭

(韩国国防研究院研究委员、前青瓦台国家安全室行政官)

2019年3月，由美国安全领域具有影响力的学者和专家组成的民间组织——第三个“当前危险委员会 (Committee on the Present danger)”成立，其大肆宣扬“中国威胁论”。我们需要思索一下每当美国国家利益面临重大岔路口，就会粉墨登场的这一委员会的象征意义。美国正在加紧渲染“中国威胁论”，对此共和党与民主党的立场一致。今年5月，白宫发布了一份名为《美国对中华人民共和国的战略方针》报告，展现出前所未有的对华强硬态度。

如果说中美战略竞争是大型齿轮，朝核威胁是小型齿轮，那么其中心就是韩国的国家安全。当中美战略竞争和朝核威胁的齿轮啮合的瞬间，就会掀起轩然大波。届时，主要当事者将围绕朝鲜半岛，意图打破军事力量的平衡。过去10年，中国努力加强军备，朝鲜也致力于开发核武器。未来几年将由美国主导。因为默默关注的美军可能会采取相应的应对措施，美国行动已经在路上。2019年8月，美国退出《中程核力量条约 (INF)》就是出于这种考量。

美军即将正式开启的军事行动对朝鲜半岛战略局势的影响巨大。韩国安全和国防领域专家应集中分析这一问题。媒体报道的美军行动给了我们3个提示，即驻韩美军早晚会部署F-35；韩国保守阵营要求美军重新部署战术核武器的呼声逐渐高涨；美国欲借废除INF，在朝鲜半岛部署远程“精确打击导弹 (PrSM)”。一旦朝鲜作出挑衅行为，美军将提前采取筹备中的反制措施。这将成为开启中美亚太地区军备竞争的契机。随着中美战略竞争与朝核尖端化的同步进行，局势也在迅速演变。

其间，多位专家提出应商榷去核化过程中朝鲜作出挑衅行为的可能性，并从“混合威胁”的层面讨论朝鲜可能提出的多种选择。同时，预测朝鲜可能通过外交博弈、助长恐惧和违法行为等，利用施压、法律体系及法律协议，发动法律战和舆论战。但是，踩线的挑衅行为可能引发中美战略竞争，从而需要密切关注。美朝河内峰会无协议而终，并在朝核协商陷入胶着状态下提出2019年末会赠送“圣诞礼物”。今年上半年朝鲜陆续试射多枚短程导弹，6月炸毁南北共同联络事务所。

朝鲜的挑衅行为由来已久，但极可能触发朝鲜半岛的中美战略竞争。朝鲜一旦作出试射ICBM或SLBM等踩线的挑衅行为，美国迟早会部署中程导弹，因为这让美国有了保卫同盟国、美国本土以及驻韩美军的理由，而韩国也会迎来比部署萨德更加严峻的考验。

朝鲜要谋定而后动，韩国若想免受中美战略竞争的池鱼之殃，就要作出战略性布局。但是，就怕朝鲜闭门塞听，一意孤行。我们要说服朝鲜按兵不动，否则就成为中美两国尖峰对决时，在旁边舞剑的国家。朝鲜应清醒地认识到脚下就是万丈悬崖。

最后，我们应更加硬气地面对美国。共同应对朝核问题，但要避免美国牵制中国时连累韩国。换句话说，我们要采取结合强硬和温和手段的“双面战略”。深入探索韩国的国家利益，并对中国乃至美国发表自己的意见。美军的中程导弹将成为特级安全问题，为了防止韩国受其影响，我们应提前制定相应的应对策略。

## 미중 전략경쟁에 대한 몇 가지 견해

### 对中美战略竞争的几点看法

장원령

중국사회과학원연구위원, 산둥대학국제문제연구원원장

张蕴岭

中国社会科学院研究员、学部委员，山东大学讲席教授，国际问题研究院院长

# 미중 전략경쟁에 대한 몇 가지 견해

장원링

(중국사회과학원연구위원, 산둥대학국제문제연구원원장)

- 미중 관계는 전략경쟁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전략경쟁은 미중 양국에서뿐만 아니라 지역적, 세계적 차원에서 포괄적이고 장기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 미중 전략경쟁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부분에서 나타난다: 첫째, 힘과 권력의 경쟁이다. 즉, 미중 양국이 전략적으로 대립하고 있으며, 상호 적대감을 갖고 있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둘째, 첨단 기술을 둘러싼 경쟁이다. 즉, 첨단 기술에 대한 선도력과 규칙 제정권에 대한 경쟁을 의미한다. 중국은 일부 영역에서 미국을 능가할 수 있는 잠재력과 역량을 갖추고 있어, 미국은 현재 자신의 우위를 활용하여 중국의 추월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누가 패권을 가졌는지에 관계없이 전략적 경쟁자로서의 중국의 지위는 변하지 않을 것이지만,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방식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셋째, 정치적 경쟁으로, 제도적 분쟁 또는 이념적 분쟁이라고도 말한다. 미국은 정치적 측면에서 중국을 바라보고 있으며, 중국의 발전과 거버넌스의 성공에 따라 이러한 분쟁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 중국과 미국 간의 이해 관계는 경제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 얽혀 있으며, 이로 인해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미국에 의해 중국이 불이익을 받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향후 양국 간에 발생할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적 또는 세계적 차원에서의 주요 문제에 대한 미중 간의 소통, 대화, 협상 및 협력의 여지는 여전히 존재한다.
-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이고 고의적인 행동들이 있었다는 사실은 이미 밝혀졌다. 중국 무역에 대한 일방적인 제재조치, 첨단 기술에 대한 중국 접근 봉쇄는 미국의 이익에 손해를 끼칠 것이며, 이는 미국의 기업들, 특히 다국적기업들 또한 원하지 않는 조치일 것이다. 따라서 미중 간 대화 관계의 틀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은 여전히 실행 가능하다.
- 전략적 경쟁자로서의 중국의 포지셔닝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겠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접근 방식은 트럼프 행정부와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미중 양국 간의 대화 가능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본다. 바이든 행정부는 일부 지역 문제 (한반도, 아시아태평양 등)과 전 지구적 문제 (WTO, WHO, 기후 변화 등)에 있어서 미중 양국 간에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

# 对中美战略竞争的几点看法

张蕴岭

(中国社会科学院学部委员、山东大学讲席教授、国际问题研究院院长)

- 中美关系进入了一个战略竞争阶段，战略竞争具有综合性，长期性，不仅是双边，也涉及地区和全球。
- 中美之间的战略竞争主要体现：一是力量与权势竞争，具有战略对手和一定对抗性的特征；二是科技领衔竞争，即竞争高科技的领先性和规则制定权，鉴于中国具备了在一些领域超越美国的潜力和能力，美国利用现实的优势，会极力阻止中国超越。不管美国谁当政，把中国作为战略竞争对手的定位不会变，但在操作方式上可能会有不同；三是政治竞争，亦可称之为制度之争，或者称之为意识形态之争，美国从政治层面看中国，会随着中国发展与治理的成功而强化。
- 中美利益交织，不仅在经济领域，也包括诸多方面，在当今重要事务上，完全排除中国对美国不利，也难以成行。因此，无论是在双边，还是在地区和世界，在诸多重大问题上，中美都存在沟通、对话、协商与合作的空间。
- 特朗普政府单边和任性行为已经证明，对中国搞单边贸易惩罚、高技术封堵，也会伤及美国的利益，美国公司，特别是大公司，不愿与中国脱钩。因此，争取中美开放、对话关系框架的基本稳定还是可能和可行的。
- 尽管把中国作为对战略竞争对手的定位不会有根本性的改变，但拜登政府的做法与特朗普政府不同，会为对话留有空间，在一些地区问题（比如朝鲜半岛、亚太）、全球问题上（比如WTO、WHO、气候变化）合作的机会更多些。

포스트 트럼프 시대, 북핵 협력 다변화 재개 필요

后特朗普时代需要重启朝核多边合作进程

주 평

남경대학교 국제관계연구원장, 중국국제관계학회 부회장

朱 锋

南京大学国际关系研究院院长、中国国际关系学会副会长



## 포스트 트럼프 시대, 북핵 협력 다변화 재개 필요

주 평

(남경대학교 국제관계연구원장, 중국국제관계학회 부회장)

한반도 핵문제의 본질은 안보이다.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해서는 당사국들의 우려사항을 균형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비핵화 구상 및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조화롭게 추진해야 한다. 중국은 북미가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는 올바른 방향을 견지해 대화 유지 및 강화, 상호 신뢰 축적, 이견 해소, 한반도 비핵화 및 정치적 해결 방법을 통해 새로운 발전을 이룩하기를 기대한다. 중국은 남북의 지속적인 관계 개선을 지지한다.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당사국들이 도출해낸 정치 협정과 해당 기구 이사회가 부여한 권한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 추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북핵 협력 다변화 재개에서 대화 협상은 양자 간의 갈등과 이견 해결 및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전제 조건이다. 육자회담, 사자회담, 중남북 삼자회담, 남북미 삼자회담은 한층 더 심도 있는 대화 협상 실현을 위해 현실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는 방안이다. 이 목표의 실현은 다음 내용에 달려 있다.

첫째, 북한 내 경제 문제. 현재 북한은 김정은 집권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 경제 문제는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이다. 대북제재, 바이러스, 자연재해의 삼중고로 인해 올해 북한은 농업, 공업, 서비스업에서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게 될 것이다. 코로나19 발발 이후 북한이 취한 국경 봉쇄 및 주민 활동 제한 조치는 북한 경제를 뒷받침하던 무역과 시장 활동에 크나큰 타격을 주었다. 이로 인해 2017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 이래 북한의 주민 소득이 종전보다 20% 하락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정도는 고난의 행군 시기의 2/3에 달할 것이다. 여태껏 북한은 외교 정책에서 국가 안보와 경제 문제를 최우선시했다. 국가 안보 분야에서 북한은 자국의 군사력을 강화하여 더이상 외교와 협력에 의존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경제 분야 문제는 더욱 복잡하다. 코로나19 확산 전에도 북한의 경제는 정권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국경 봉쇄 이후 북한의 경제는 UN의 대북제재 조치 당시보다 더 큰 충격을 받았다. 코로나19는 세계적 경기 침체를 일으켰는데, 이는 기존에도 빈약했던 북한의 경제를 더욱 악화시켜 정권의 합법성과 체제의 안정을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지속함과 동시에 자국 경제 발전에 안정적인 대외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중국, 한국,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바라고 있다.

둘째, 북미관계의 획기적 진전 여부 2018년 6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 이후 양측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에서 양측은 신 북미관계 구축,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 실현, 한반도의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에 합의를 도출했다. 2019년 2월, 트럼프와 김정은의 2차 정상회담이 진행되었다. 당시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두 지도자가 비핵화 실현과 경제 주도 구상에 대해 논의했지만 현 시점에서 아무런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북미간 뿌리깊은 불신으로 인해 관계 개선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트럼프 정부는 이 방면에 주요 책임이 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북미 지도자의 지속적인 교류를 환영하며, 조속히 유익한 대화 접촉을 회복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미간 상호 신뢰 증진, 한반도 교착 상태 해소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지난 몇 년간 북한은 긴장 완화와 비핵화 방면에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으나 미국의 실질적인 호응을 얻지 못했고, 이로 인해 북미 대화는 정체에 빠졌다. 북한에 대한 미국 정계의 고질적인 적대감과 의심이 주요 원인이다. 만약 미국이 북한에 양보하길 원한다면 반드시 미국 내에서 공감대를 실현해야 하며, 특히 대북 강경파에게 지지를 얻어내야 한다.

셋째, 남북관계의 근본적 개선 여부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래, 장기적 군사 대치에 있던 남북관계는 점차 완화되기 시작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달리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을 주장하고 남북간 교류와 협력을 모색하며 그것을 기반으로 한반도 비핵화 문제 협상을 재개하여 결과적으로 평화통일의 발판을 다졌다. 문 대통령은 한국 대부분의 지역이 북한의 공격 범위 안에 있기에 남북간 충돌 혹은 전쟁 발생 시 한국의 경제는 크나큰 타격을 받아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을 잘 알고 있다. 이로 인해 문재인 정부는 남북간 우호 협력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며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을 대대적으로 추진하면서 한반도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동맹과 한국 내 보수 세력에 의해 북핵 문제에 관한 문재인 정부의 발언권은 제한적인 상태이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및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대북정책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이다.

## 后特朗普时代需要重启朝核多边合作进程

朱 锋

(南京大学国际关系研究院院长、中国国际关系学会副会长)

朝鲜半岛核问题本质是安全问题。要真正实现半岛无核化，需要均衡解决有关各方合理关切，协调推进无核化与构建半岛和平机制。中方希望有关方，特别是朝美坚持政治解决的正确方向，保持并加强对话势头，相向而行，积累互信，妥善处理分歧，推动半岛无核化和政治解决进程持续取得新进展。中方支持朝韩不断改善关系。中方希望机构按照有关各方达成的政治协定及机构理事会相关授权，为推进半岛无核化进程做出贡献。简言之，在重启朝核多边合作的进程中，坚持对话协商是化解双方矛盾分歧、推动解决半岛问题的重要前提。为进一步实现对话协商，现实中的选择主要包括：六方会谈、四方会谈、中朝韩三边会谈、美朝韩三边会谈。若要实现这一目标，主要取决于以下几方面条件：

一是朝鲜国内的经济问题。当前，朝鲜确实面临着金正恩执政以来的最大危机，其中最严重的是经济问题。在制裁、疫情、自然灾害的三重影响下，朝鲜今年的农业、工业、服务业很可能会集体出现负增长。新冠疫情爆发后，朝鲜一边对外封锁边境，一边在国内采取限制居民活动的措施，给支撑朝鲜经济的贸易和市场活动造成了严重打击。这意味着，从2017年国际社会加强对朝制裁以来，朝鲜居民的收入将比以前下降20%，打击程度几乎是苦难行军时期的三分之二。朝鲜外交政策向来把国家安全和经济问题放在最重要的位置。在国家安全方面，朝鲜宣布强化本国军事实力，不再依靠外交与合作。经济方面的问题更为复杂。新冠疫情扩散之前，朝鲜的经济本就无法满足政权的期待，封锁边境后，朝鲜经济更是受到了比联合国制裁更为严重的打击。此外，新冠疫情导致全球经济停滞，本就贫弱的朝鲜经济只会进一步恶化，甚至威胁到政权的合法性和体制稳定。在这种情况下，朝鲜在继续发展核导武器的同时，也希望缓和同中国、韩国以及美国间的关系，旨在为本国发展经济提供良好的外部环境。

二是美朝关系是否能取得突破性进展。2018年6月，美国总统特朗普与朝鲜最高领导人金正恩举行会晤，会后双方发表联合声明。双方就建立新型美朝关系、实现朝鲜半岛无核化、构建半岛持久稳定和机制等取得共识。2019年2月，特朗普与金正恩举行第二次会晤。白宫发言人桑德斯指出，两名领导人讨论了实现无核化和推动经济的各种方法，但双方现阶段没有达成协议。由于美朝两国根深蒂固的不信任感，两国关系的进展始终有限。在这一方面，特朗普政府应负主要责任。王毅外长指出，中方乐见朝美领导人保持互动，希望朝美早日恢复有益的对话接触。但同时，

增进朝美互信、打破半岛僵局更需要实实在在的行动。过去几年朝方在缓解紧张局势和无核化方面采取了不少积极举措，但遗憾的是并没有得到美方的实质回应，这是导致朝美对话陷入停滞的重要原因。这主要是因为美国政坛普遍存在对朝鲜的根深蒂固的敌对与怀疑情绪。美国如果想对朝鲜让步，就必须凝聚国内共识，尤其是要取得对朝强硬派的支持。

三是韩朝关系能否得到根本改善。自2017年文在寅上任以来，长期处于军事对峙状态的韩朝关系逐渐走向缓和。与李明博和朴槿惠政府不同，文在寅主张改善韩朝关系，谋求韩朝两国间的交流与合作，并在此基础上重启半岛无核化问题协商，最终为和平统一提供良好的基础。文在寅非常清楚，韩国的大部分地区都在朝鲜的火力覆盖下，一旦韩朝两国发生冲突或战争，韩国的经济成果势必会遭到重创，从而成为朝鲜半岛最大的受害国。鉴于此，文在寅政府积极促进韩朝友好合作，大力推进朝鲜半岛无核化进程与和平机制建设，保持朝鲜半岛的局势稳定。但由于受到美韩同盟以及韩国国内保守势力的制约，文在寅政府在朝核问题上的发言权始终有限。尽管如此，为构筑朝鲜半岛永久和平机制以及促进韩朝关系的持续发展，文在寅政府在对朝政策上会继续扮演积极主动的角色。

정확한 미중관계 인식을 통해  
미중협력의 새 시대를 열자  
清醒认知中美关系，开拓中美协作关系新时代

장징첸

산동대 동북아학원, 국제문제연구원 부원장 및 교수

张景全

山东大学东北亚学院副院长、教授, 山东大学国际问题研究院副院长、教授

# 정확한 미중관계 인식을 통해 미중협력의 새 시대를 열자

장징첸

(산둥대 동북아학원, 국제문제연구원 부원장 및 교수)

현재의 중미관계에 대해 다음의 네 가지 견해를 제시 한다

## 첫째, 혼란 : 중미관계의 “제3자화”에서 국제관계의 중미(中美)화까지

지난 오랜 기간 동안 중미관계는 제3자의 영향으로 중미관계에 있어 “제3자화”라는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최근 10년 동안 중미관계에 큰 변화가 나타났다. 미국이 중국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점점 프런트 의식을 가지면서 국제관계가 곧 미국의 대중(對中) 관계, 또는 국제관계가 곧 중미문제가 되는 흐름이 생겼다.

## 둘째, 오판: 중국은 미국만 해결 하면 세계문제를, 미국은 중국만 해결 하면 역시 세계 문제가 해결 가능하다는 착각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착각이 있는데 바로 중국이 미국만 해결 되면 세계를, 미국은 중국만 해결 하면 계속해서 세계를 지배 할 수 있다는 오판이다. 이 때문에, 중미 경쟁이 확대 되고 인식의 함정(예: 도전자와 수호자 관계)에서 말의 함정(예: 투키디데스 함정) 그리고 정책적 함정(예: 무역전쟁과 기술전쟁)까지 빠지는 악순환이 나타난다.

## 셋째, 착오: 중미관계에는 신(新)냉전이 아니다.

냉전에는 네 가지 기준이 있는데 바로 군사동맹 대결, 이데올로기 대결, 핵 공포의 균형, 대리전쟁 이나 어느 정도의 열전(熱戰)이 그것이다. 현재 이와 같은 냉전의 네 가지 특징이 보이지 않는다. 특히 신(新)냉전 중의 다툼, 즉 전쟁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중미관계를 신(新)냉전으로 묘사 하는 것은 객관성이 없다.

## 넷째, 미래: 4C모델

현재의 중미관계는 다음의 4C모델을 고려해야 한다. 즉, 충돌 ( conflict ), 경쟁 ( competition ), 조정 ( coordination ), 협력 ( cooperation ) 이 그것이다. 현재 중미관계 해결을 모색 할 때 협조 모델을 착안해야 한다. 즉, 중미관계를 이성적으로 협조하는 방안을 차우선 사항으로 선택하는 모델을 추진함으로써 중미관계의 충돌 모델을 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清醒认知中美关系，开拓中美协作关系新时代

张景全

(山东大学东北亚学院副院长、教授, 山东大学国际问题研究院副院长、教授)

关于目前的中美关系，我想谈四点看法。

## 一、 迷失：从中美关系的第三方化到国际关系的中美化

长期以来，中美关系受到第三方因素的影响，中美关系存在第三方化问题。然而，近10年来，中美关系却出现了一个大的变化，即美国在一些涉及中国的问题上，表现出越来越多的前台意识，国际关系被带入美国对中国的节奏之中，将国际关系中美化。

## 二、 误判：中国只要搞定美国就能搞定世界，美国只要搞定中国就可以继续搞定世界

普遍存在着一个错误的认知，即中国只要搞定美国就能搞定世界，美国只要搞定中国就可以继续搞定世界。于是，中美博弈被错误的扩大，进入从认知陷阱（例如，挑战者与守成者的认知），到话语陷阱（例如，修昔底德陷阱），再到政策陷阱（例如，贸易战、科技战）的恶性循环之中。

## 三、 误断：中美关系不存在新冷战

冷战有四个标准，即军事同盟对抗，意识形态对抗，核恐怖平衡，代理人战争或一定限度的热战。结合现实，我们会发现，冷战的四个特征都没有，尤其是新冷战中的战即战争是不存在的，因此，把中美关系描述成新冷战，是不客观的。

## 四、 未来：4C模式

处理当前的中美关系应该思考4C模式，即冲突（conflict）、竞争（competition）、协作（coordination）、合作（cooperation）。在处理当前中美关系的时候，应该着眼于协调模式，弱化追求中美关系的最优选项合作模式，理性追求中美关系的次优选项协作模式，努力避免中美关系的最劣选项冲突模

## 미국의 새 정부 출범과 한반도 비핵화의 방향 国新政府上台与朝鲜半岛无核化走向

리춘푸

남개대학 아시아연구센터 부주임, 한국연구센터 부주임, 교수

李春福

南开大学亚洲研究中心副主任、韩国研究中心副主任、教授



# 미국의 새 정부 출범과 한반도 비핵화의 방향

리춘푸

(남개대학 아시아연구센터 부주임, 한국연구센터 부주임, 교수)

## 1 미국 새 정부 출범

결과 발표가 늦어지고 있지만 내년 1월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 가능성은 여전하다.

## 2 미국 새 정부 출범 이후의 대북정책 예고

도전:

- 1) 절차와 원칙 중시, 트럼프 행정부의 top down 방식 탈피, Bottom-up 방식 재개
- 2) 여러 난제에 직면한 새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 국내 통합, 전염병 방역, 전임 대통령이 탈퇴한 수많은 국제 협정의 복구 작업. 북핵 및 한반도 문제는 우선순위 아님

기회:

- 1)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바이든 정부는 동맹관계를 중시할 것이라 거듭 표명

-문재인 정부의 평화 구축 및 중개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문 정부의 남은 임기는 1년 남짓이지만 한국의 10년 주기 정권 교체 규칙과 현 한국 정치 생태계로 보아 다음 대선에서도 진보 정권이 출범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 2) 오바마 시기의 '전략적 인내' 정책이 되풀이될 가능성은 낮아

-오바마 시기에 비해 눈에 띄게 강해진 북한의 핵능력은 매우 시급한 문제가 되었다.

-학습 효과(오바마 정부 전략적 인내 정책 후기에 존재했던 미국 내 다수의 비판적 의견)

## 3 과도기, 북한의 온건한 관망정책 선택 가능성 높아

(북한은 미국 새 정부의 발언과 행동을 지켜볼 것)

- 1) 트럼프 집권 시기의 북미 정상간 직접 대화, 관계 개선의 기초
- 2) 문재인 정부의 평화 구축 및 남북관계 안정 위한 노력
- 3) 안정적인 중북관계

#### 4 핵심 포인트

1) 2021년 1월 개최될 북한의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대미 전략 및 정책을 포함한 새 국가 경제발전 5개년 계획(2021~2025) 제정. 북한의 민생 중시, 평화 발전 유지를 위한 노력.

2) 반년 정도 소요될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및 한반도 정책 틀과 참모진 구성. 새 정부의 외교 안보 참모진, 동아태 차관보, 대북정책특별대표 임명 등.

#### 5 중국과 한국이 해야 할 일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전, 중한 양국은 북미 대화를 위한 건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1) 중북관계 강화, 북미 대화 추진.

2) 한반도 핵문제에 대한 중한 협력 강화. 11월 6일 문 대통령이 제시한 한반도 종전 선언 추진 구상을 주목할 만하다. 중한 양국은 북미와의 긴밀한 소통과 중개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중남북미 사자대화 프로세스를 구축해 북미 대화를 추진해야 한다. ①비핵화의 큰 방향, ②비핵화 발전 및 제재 완화 동시 추진, ③단계적, 동시적, 일괄타결의 추진 방식을 견지해야 한다.

3) 협의와 조정을 통한 북미 대화 재개 실현. 트럼프 행정부 시기(특히 2017~2019년)에 한반도 정세는 많은 변화를 겪었다. 그에 비해 바이든 시기의 한반도 정세는 느리지만 안정적이고 질서 있게 추진될 가능성이 보인다.

# 国新政府上台与朝鲜半岛无核化走向

李春福

(南开大学亚洲研究中心副主任、韩国研究中心副主任、教授)

## 1 美国新政府上台

结果虽延迟，拜登行政府明年一月仍有望正式上台

## 2 美新政府上台后对朝政策预估

### 挑战：

1) 重视程序与原则，摒弃特朗普行政府top down方式，重新启动Bottom-up方式 2) 新政府面临诸多难题，政策的优先顺序。国内统合、防控疫情、纠正前任退群重返诸多国际协议，朝核、半岛问题不是优先重点

### 机遇：

- 1) 比起特朗普行政府，拜登政府多次重申重视与同盟国的关系  
-文在寅政府的构筑和平、斡旋努力非常重要。文政府任期还有1年半，根据韩国10年政权轮替规律及当下韩国政治生态，进步政府仍有望赢得下届大选。
- 2) 很难重返奥巴马时期“战略忍耐”政策  
-与奥巴马时期相比，朝鲜核武能力显著提升，非常紧迫  
-学习效果（奥巴马政府战略忍耐政策后期在美国内遭很多批判）

## 3 过渡期朝鲜做出稳健的观望政策可能性高

（朝鲜会对美新政府听其言、观其行）

- 1) 特朗普执政时期，朝美最高领导人直接对话、关系改善的基础
- 2) 文在寅政府的构筑和平，稳定南北关系的努力
- 3) 稳定的中朝关系

## 4 关键节点

- 1) 2021年1月召开的朝鲜劳动党八大。制定新的国家经济发展五年（2021-2025）计划，包括其对美战略、政策。努力继续朝鲜重视民生、和平发展的势头。
- 2) 拜登行政府对朝、半岛政策成型、团队组建需半年左右。组建新政府外交安全团队、亚太助理国务卿、对朝政策特别代表等任命等。

## 5 中韩要做什么

拜登行政府上台前，中韩努力营造朝美对话的良好氛围。

- 1) 巩固中朝关系，推动朝美对话。
- 2) 加强中韩在半岛核问题的协作。11月6日文总统提出的推进半岛终战宣言的构想值得重视。中韩要与朝美紧密沟通、斡旋，构建推进半岛无核化的中朝韩美四方对话机制，推动朝美对话。坚持无核化大方向，坚持无核化进展与缓和制裁、改善关系同步推进，坚持分阶段、同步走、一揽子解决的推进思路。
- 3) 经过磨合、调试后美朝可以重启对话。比起特朗普行政府时期（尤其2017到2018，再到2019年）半岛局势跌宕起伏，拜登时期半岛局势缓慢但稳步有序推进的可能性。

## 중미 전략 전망 및 중미 대응 조치에 대한 평가:

---중미 군사 경쟁의 성질, 경계 및 관리

如何评价中美战略前景以及中美应对措施:

---中美军事竞争性质、边界及管理

치하오텐

북경대 중외인문교류연구센터 비서장, 북경대 국제관계학원 조교수

祁昊天

北京大学中外人文交流研究基地秘书长、北京大学国际关系学院助理教授

## 중미 전략 전망 및 중미 대응 조치에 대한 평가:

### ---중미 군사 경쟁의 성질, 경계 및 관리

치하오텐

북경대 중외인문교류연구센터 비서장, 북경대 국제관계학원 조교수

#### 중미 군사 경쟁과 군사 전환 및 준비 강화

상대적 역량과 지위 변화에 직면 시, 기존 강국(소위 말하는 ‘수성국’ 혹은 ‘패권국’)의 우위가 약해지는 이유는 무엇이며, 언제 군사 경쟁으로 변화하는가? 모델, 방법론, 표본 데이터, 사례 등의 오류로 인해 기존 학술 및 정책 연구로는 이 문제에 대해 효과적인 답안을 제시할 수 없는데, 중미관계 역시 예외가 아니다. 필자는 간명하면서도 보편적인 기준으로 군사 경쟁(신흥국에 대한 기존 강국의 군사 전략 및 전술 조정)을 정의하려 한다. 이 관점에서 볼 때, 중미는 이미 군사 경쟁 상태에 있다.

미국의 군사 경쟁은 전략적 측면에서 지정학적 ‘대전략’의 회귀로 나타나고 있다. 탈냉전 시대, 포스트 9·11 시대 ‘제국의 변방’ 지역의 군사 개입 및 장기적 치안전과 비교할 때, 미국은 전략의 중심을 유라시아 대륙에 등장한 비슷한 규모와 기술력을 가진 경쟁 상대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적 준비로 조정했다. 이에 기초하여 미국은 이미 군사적 측면의 전 계보적 조정을 진행 중이다. 전략적 역량 측면에서 미 국방부는 수십억 규모의 전략적 역지력 현대화를 위한 다년간 계획을 내놓았다. 향후 신형 핵전략잠수함, 신형 스텔스기를 보유하게 될 것이다. 다층적 미사일 방어망을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정찰 탐지 능력, 지휘 통제 체계 및 살상무기의 업그레이드를 전면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중거리핵전력조약(INF) 파기 후 지상 기반 중거리 화력을 강화하고 군사 대국에 대한 지역적 역지력과 시한성 긴급 표적(TST)에 대한 공격력을 향상시킬 것이다. 전통적 역량 측면에서 미국은 대등한 능력과 규모를 지닌 상대를 대상으로 고강도, 고급 기술을 요하는 전통적 군사 충돌 (공군의 스텔스 성능 강화, 제해권 쟁탈 및 장악, 각 군종의 원거리 공격력 향상, 전자전 및 사이버 공간에서의 공격력과 방어력 강화, 극초음속 무기의 포괄적 개발, TST에 대한 빠른 대응력, 커맨드 체인과 킬 체인에 무인화와 인공지능 도입, ‘우위 창구’ 유지 및 확대)에 작전 능력을 집중시킬 것이다.

작전 방식 측면에서 미국은 반접근/지역거부(A2AD·anti access/area denial)에 대해 줄곧 우려를 표하고 있으며(중국 정부는 이를 지도 전략으로 삼은 적이 없었음에도), ‘전 영역 합동 지휘 통제’로 대표되는 일련의 개혁 상식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새로운 방안들은 아직 미성숙한 단계인 데다 관련 입장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전쟁의 법칙 변화라는 큰 흐름 속에서 공통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것들이 강조하는 것에는 ①한층 더 심도 있는 융합, ②다영역 연계(육, 해, 공, 우주, 전자, 인터넷), ③전장 밀도 감소, 즉 각 작전 단위의 지속적인 책임 범위 확대, ④단일 플랫폼 강화와 플랫폼 역할 감축 및 플랫폼 간 네트워크 역할 강화, ⑤신개념 및 신기술 개발 및 사용이 있다.

### 중미간 군사 전환과 상대적 역량의 균형 이전에서 나타나는 이중고와 관리

중국측 군사 전환의 내용과 방향은 앞서 언급한 미국의 조정과 동일한 성격을 지닌다. 양국이 동시에 진행 중인 군사 경쟁 준비는 군사 투쟁 방식에 전장 속도 제고, 정보 차원 향상, OODA 프로세스의 지속적 단축, 전장의 상대적 투명성 하락, TST 중시, 유효한 첫 공격의 중요성 증대와 같은 특징을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이 특징들은 모두 상호 억지력, 전략적 안정성을 지닌 현재 군사 체계의 기초를 각기 다른 차원에서 약화시키고 있을 것이다.

중미간 상대적 역량 균형 조정은 군사적 측면 외에도 필연적으로 선(先)보상 딜레마(Precompensation dilemma)와 약속 딜레마(commitment dilemma)라는 정치적 문제를 동반할 것이다. 전자는 신흥국과 수성국 모두 발전 과정과 역량 변화 출현 이전에는 신흥국의 사전 보상에 동의하나, 사전 보상의 실행가능성은 상대적 역량 변화의 속도와 강도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속도가 빠르고 강도가 높을수록 어려움이 더해진다. 후자는 역량 균형 변화 이후에 나타나는 어려움, 즉 신흥국은 동의한다 해도 수성국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위와 같은 정치 및 군사 측면의 문제로 인해 중미 군사 경쟁은 양국, 지역(아·태, 동북아), 더 나아가 글로벌 군사 안보의 안정과 관리의 수요를 더욱 높일 것이다. 이 자리에서 상세하게 설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대략적 판단과 관리의 수요에 대해서만 언급하도록 하겠다.

효과적 관리를 위해서는 상호 군사 체계 전환에 대한 중미 양국의 두 가지 인지가 필요하다. 첫째, 중미 전환 업그레이드 속도의 차이로 나타나는 속도차이 인지. 둘째, 향후 군사 경쟁의 성질과 형태에 대한 양국의 인지로 나타나는 전환 방향 인지. 이 두 요소는 고

저(高低) 및 대소(大小)의 차이에 따라 이행과 보상의 어려움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군사 경쟁 변화 방향에 대한 양국의 확신과 인지가 비교적 높을 때 향후 협력 이행 및 허가의 어려움은 비교적 낮게 나타나며, 군사 체계 변화에 대한 속도 차이가 크다는 것을 인지할 때 선(先)보상의 실행가능성은 비교적 낮게 나타난다.

인지하고 있는 군사 전환의 차이와 확신		군사 체계 변화의 속도 차이	
		大	小
군사 경쟁 변화 방향에 대한 확신	高	이행 허가 어려움 낮음 선(先)보상 어려움 높음	이행 허가 어려움 낮음 선(先)보상 어려움 낮음
	低	이행 허가 어려움 높음 선(先)보상 어려움 높음	이행 허가 어려움 높음 선(先)보상 어려움 낮음

군사 전환에 대한 중미 정부의 판단 및 상대방의 군사 경쟁 위치에 대한 판단으로 볼 때, 양국은 현재 이행 어려움은 비교적 낮지만 선(先)보상 어려움은 비교적 높은 위치에 놓여 있다. 군사 경쟁 전환 방향에 대한 확신은 있지만 서로 인지하고 있는 전환 속도의 차이는 큰 지금, 중미 양국이 사전 보상으로 향후 협력을 실현할 실행가능성은 비교적 낮다. 따라서 전략 관리의 중점을 다궤도/다차원/다영역 인문 교류 강화, 실질적 투명성 향상, 군사 전환 관련 기술 관리 시스템 공동 건설 등의 조치 강화 같은 이행 허가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바꾸어야 한다.

# 如何评价中美战略前景以及中美应对措施：

## ——中美军事竞争性质、边界及管理

祁昊天

(北京大学中外人文交流研究基地秘书长、北京大学国际关系学院助理教授)

### 中美军事竞争与美国的军事转型及加强准备

当相对实力或地位的分布发生变化时，为何原占优国（即所谓“守成国”或“霸权国”）会面临优势被削弱，何时演变为军事竞争？由于模型、方法论、样本数据与案例等方面存在的问题，既有学术与政策研究并无法很好地回答这一问题，在中美关系问题上亦然。此处，笔者采用一条较为简明且具有一定普适性的标准来界定军事竞争——原有领先国是否针对相对崛起国而开始调整军事战略及技战术体系。从这个视角出发，中美已处于军事竞争状态。

美国方面，这一竞争在战略层面表现为地缘政治“大战略”的回归，相比于后冷战时代和后911时代在“帝国边缘”地带的军事介入及长期的治安战，美国重新将战略中心调整为应对欧亚大陆出现近似体量和能力竞争对手的军事准备。基于此，美国已在军事层面做出全谱系调整。战略力量方面，五角大楼做出了几年内战略威慑能力现代化的数十亿计划；未来将装备新型战略导弹核潜艇、新型隐身轰炸机；不断提高多层导弹防御网的建设，从侦察探测能力、指控系统到杀伤载具，升级工作全面铺开；退出《中导条约》，加强陆基中远程火力建设，提高对军事大国的区域威慑能力、对时间敏感目标的打击能力。常规力量方面，美国重新针对同级别能力和体量的对手，将作战能力聚焦于高强度、高技术常规军事冲突；加速空中力量的隐身化；在海上重新强调制海权的争夺与掌控；加强各军种远程打击能力；强化电子战与赛博空间的攻防能力；多管齐下开发高超声速武器，提升对时间敏感目标的快速反应能力；将无人化与人工智能引入指挥链和杀伤链，维持并重新扩大“优势窗口”。

作战思想方面，美国对于中国的反介入/区域拒止能力担忧已久（虽然中国从未官方将其作为指导战略）并针对性推进一系列以“全域作战”为代表的改革常识，这些新方案虽都处在不成熟的发展阶段，且各有侧重，但在战争规律演变的大方向上，体现了一些共同特点。它们都强调：进一步深度融合；多个域的打通（陆、海、空、天、电、网）战场密度进一步降低，即每一级作战单元的责任区范围继续上升；在提升单一平台能力的基础上同时弱化平台作用，更加侧重平台间网络的作用；提高新概念、新技术的开发和使用。

### 中美军事转型与相对实力均衡转移下的双重风险与管控



中国方面的军事转型和加强在内容和方向方面与美国以上调整具有高度同质性，两国同时所进行的军事竞争准备正在为军事斗争方式赋予以下特征：战场速度大大提升、信息维度显著增高、OODA 链条不断缩短、战场相对透明度降低、对时间敏感目标重视提高、对首次打击有效性的重视提高。而所有这些特征都可能在不同层面削弱当前的相互威慑、战略稳定的军事体系基础。

在这一军事层面之外，中美之间相对实力均衡出现调整又将必然带来的一组伴生政治挑战，即预补偿困境与承诺困境。前者是指崛起国与守成国都有意图在崛起过程中、实力对比完全出现改变前由崛起国率先发出预补偿，但预补偿的可行性取决于相对实力改变的速度与强度，越大则越困难。后者是指对实力均衡改变后做出预先承诺的困境，即便崛起国由此意图，守成国也有充分的理由不采信承诺将被遵守。

由于存在以上政治与军事两个层面的稳定挑战，中美军事竞争对于中近期两国之间、区域（如西太、东北亚）乃至全球军事安全稳定与管控均提出了非常高的管控需求。由于此处无法详细展开，笔者仅将判断框架与相应可能的管控需要简要提议于此。

实现有效管控的需要在于中美两国对于相互军事体系转型的认知，该认知存在两个维度：中美差距认知，表现为中美提升转型的速度差；转型方向认知，表现为两国对未来军事竞争性质与形态的认知。当这两种因素分别存在高低与大小的取值差异时，承诺难度与补偿难度分别存在如下的高低组合。两国对于军事竞争演进方向的确定性认知均较高时，做出未来合作承诺并被认可的难度相对较低，而当两国认知军事体系演进速度差较大时，做出预补偿的可行性较低

认知中的军事转型差距与确定性		军事体系演进速度差	
		大	小
军事竞争演进方向确定性	高	承诺认可难度低 预补偿难度高	承诺认可难度低 预补偿难度低
	低	承诺认可难度高 预补偿难度高	承诺认可难度高 预补偿难度低

仅就目前中美官方对军事转型的判定以及对彼此军事竞争身位的判断来看，两国尚处在承诺难度相对低、而预补偿难度较高的象限。因此，在相对军事竞争转型方向认知较为确定，但相互认知转型速度差距大的当下，中美希冀以预补偿实现未来合作的可行性较低，应将战略管理的重点放在提升承诺认可度方面，诸如加强多轨/层次/领域人文交流、提高实质透明度、共建军事转型相关技术管理机制等措施应得到加强。

바이든 시대 중국의 역할은?  
拜登时代中国的角色是什么?

김흥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 소장

金兴圭

亚洲大学 中美政策研究所所长

# 바이든 시대 중국의 역할은?

김홍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 소장)

1. 바이든 시대 미국의 대중 정책은 트럼프 시기와는 다른 방향의 정책 조정이 가능하다. 미중 간의 격렬한 전략경쟁은 서로 감당하기 어렵고, lose-lose 게임이다. 바이든 행정부와 중국은 기후변화, 테러, 질병, 핵 비확산 등의 문제에서는 상호 협력이 가능할 것이다. 이 경우 중국은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전략적 협력을 할 수 있는가? 바이든은 과거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 협상을 주도하는 방식은 찬성하지 않을 것이다. 이미 효과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중국은 어떠한 방식으로 북한 비핵화 노력에 공헌할 수 있는가?
2.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한중 관계가 진정한 전략적 협력의 단계로 진전되기 어렵다. 한국이 핵을 보유한 경우가 아니라면, 핵을 보유한 북한에 대해 한국은 계속 미국에 안보를 의지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중국이 미국을 대신해 한국의 안보를 해결해 줄 수는 없지 않은가? 북한 핵문제는 중국의 발전이나 한중 관계에 지속적으로 장애물이 될 것이다. 중국이 주도하여 개입하여 북한의 비핵화를 실현하거나, 한반도 문제를 안정화시키는 방안은 제시할 생각은 없는지? 이는 동아시아의 국제정치를 바꿀 것이다.
3. 한국과 북한은 모두 '상호 신뢰의 결핍'과 '안보 불안 상태'에 놓여있다. 어느 일방의 제안이나 혹은 남북한 양자가 이 문제를 스스로 극복하기는 어렵다. 남북한 관계가 안정화 되는 것은 적어도 각자 '안보 불안 상태'를 벗어나야 가능하다. 한국은 미국에 대한 안보 의존을 벗어나려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여 '공포의 균형'을 이룩할 상당한 수준의 무력 증강이 필요하다. 이 과정은 쉬운 과정이 아닐 것이다. 중국과 전략적 소통이 필요하고, 한반도 안정을 잘 관리하기 위한 중국의 역할도 중요하다. 이번 시진핑 주석의 '한국전쟁 관련 연설'에는 한국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다. 중국이 한국에 대한 기본적인 배려와 이해가 없다면, 한반도는 계속 불안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는 중국에게도 큰 부담이 될 것이다.

# 拜登时代中国的角色是什么？

金兴圭

(亚洲大学 中美政策研究所所长)

1. 有别于特朗普时代，拜登时代的美国对华政策可能有所调整。激励的中美战略竞争对双方而言，都是难以承受之重，只会两败俱伤。拜登政府可能就气候变化、恐怖主义、疾病和核不扩散等问题，与中国展开合作。那么，中国和美国会为了朝鲜去核化，展开战略合作吗？拜登总统应该不会同意再由中国主导朝鲜去核化谈判，因为未曾取得成效。那中国要以何种方式推动朝鲜去核化呢？

2. 若不能实现朝鲜去核化，中韩关系就很难真正达成战略合作。韩国没有核武器，从而为了对抗拥有核武器的朝鲜，只能依赖美国的安全保护。难道中国能替代美国，解决韩国的安全困境吗？朝核问题将成为中国发展会中韩关系发展的障碍。中国是否能积极介入和主导去核化进程，或者提出维护朝鲜半岛稳定发展的解决方案？这将改变东亚地区的国际政治。

3. 韩国和朝鲜都处于“缺乏相互信任”和“不安全状态”。任何一方的提议或韩朝两国都难以自行打破这一僵局。建立稳定韩朝关系的前提是各自能够摆脱“不安全状态”。韩国若想摆脱对美国的安全依赖，就需要加强武装力量，进而能够应对朝鲜核武器和导弹，形成“恐怖平衡”，但这并非易事。为此，韩国需要与中国展开战略沟通，实现朝鲜半岛的稳定发展也离不开中国作用。本次习近平总书记“关于抗美援朝战争的讲话”丝毫没有顾及韩国的想法。若中国对韩国没有基本的理解和关怀，朝鲜半岛就会一直动荡不安，而这也将成为中国的沉重负担。

**대중 경제 정책: 트럼프 행정부 평가와 바이든 행정부 전망**  
**对华经济政策: 对特朗普政府的评价及拜登政府的展望**

이왕희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李王徽

亚洲大学政治外交系教授

# 대중 경제 정책: 트럼프 행정부 평가와 바이든 행정부 전망

이왕희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미국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정책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이뤄지고 있음

-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실패함
- 미국의 무역적자, 대중의존도는 2019년 축소되었다가 2020년 다시 증가함
- 리쇼어링(reshoring)을 통한 미국제조업의 부활은 이뤄지지 않고 있음
- 글로벌 공급망(global supply chain)에서 중국과 탈동조화(decoupling)도 진전되지 않고 있음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압박정책이 실패한 이유

- 무역전쟁의 목표가 분명하지도 일관되지 않음
  - 2017-18년: 무역불균형(미국의 대중 무역적자/중국의 대미 무역흑자) 축소
  - 2018-20년: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의 고립/봉쇄(탈동조화/ 신냉전)
- 무역불균형 해소와 중국의 고립/봉쇄는 서로 상충되는 목표임
  -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미국의 대중수출을 증대해야 함으로 상호의존이 증가
  - 중국의 고립/봉쇄를 위해서 미국이 대중수출 규제를 취하면 상호의존은 감소할 수밖에 없음
- 이러한 문제는 부처별 입장차이에 반영되어 있음
  - 강경론: 국무부, 상무부, 백악관 무역·제조정책국
  - 온건론: 재무부, 무역대표부(USTR),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 세계에서도 대중무역 및 투자에 대한 입장이 분열
  - 미국상공회의소 중국지사: 80% 이상이 리쇼어링을 고려하고 있지 않음(애플 및 테슬라)
  - 금융기관은 중국자산(주식 및 채권)에 대한 투자를 계속 늘리고 있음

#### ◆바이든 행정부의 과제

- 글로벌: 보호주의에서 자유무역으로 전환: WTO 복귀, CPTPP 가입, 파리협약 복귀
- 아태지역: 탈동조화/신냉전위협 완화
  - 클린네트워크(clean network), 경제번영네트워크(EPN) 재검토: 동맹국들의 지지와 참여가 저조
  - 미중 전략경제대화(트럼프행정부에서 포괄적 경제대화로 명칭 변경)의 재개
- 중국
  - 1단계 무역합의 재검토: 현재 추세로 보면 중국이 21년 말까지 2,000억 달러 구매 약속 이행 불가
  - 쌍순환(雙循環)에 대한 대응책 마련: 국내 대순환이 성공하면 미국의 대중 압박 수단이 사라지게 됨

# 对华经济政策：对特朗普政府的评价及拜登政府的展望

李王徽

(亚洲大学 政治外交系教授)

## ■ 美国正在全面地重新评估特朗普政府的对华政策

- 特朗普政府没能实现“美国第一 (America First)”的目标
- 2019年美国贸易逆差和对华依赖度有所下降，但在2020年再次回升
- 回流 (reshoring) 并没有带来美国制造业的复兴
- 没有从全球供应链 (global supply chain) 转变成中美经济脱钩 (decoupling)

## ■ 特朗普政府对华打压政策失败的理由

- 贸易战目标不明确及不一致
  - 2017~2018年：减少贸易不平衡（美国对华贸易逆差、中国对美贸易逆差）
  - 2018~2020年：在全球供应链中封锁孤立中国（脱钩、新冷战）
- 解决贸易不平衡与封锁孤立中国的目标相悖
  - 为了解决贸易不平衡，美国扩大对华出口，从而加深了相互依赖
  - 为了封锁孤立中国，美国限制对华出口后，双方相互依赖必然会减弱
- 这些问题反映在各部门的立场差异
  - 强硬论：国务院，商务部，白宫贸易和制造业政策办公室
  - 温和论：财政部，贸易代表办公室 (USTR)，白宫国家经济委员会 (NEC)
- 财界对华贸易和投资的立场也对立
  - 美国商工会议所中国分公司：不考虑80%以上的回流（苹果及特斯拉）
  - 金融机构持续加大对中国资产（股票及债券）的投资



## ■ 拜登政府的课题

- 全球：从保护主义回归到自由贸易：回归WTO，加入CPTPP，重返《巴黎协定》
- 亚太地区：缓解脱钩、新冷战威胁
  - 重新评估“净网计划（clean network），经济繁荣网络（EPN）：同盟国的支持率和参与度低
  - 重启中美战略与经济对话（特朗普政府将其更名为“中美全面经济对话”）
- 中国
  - 重新评估第一阶段贸易协议：就目前情况来看，中国将无法履行截至2021年末的2000亿美元采购约定
  - 制定双循环的应对方案：“国内大循环”一旦成功，美国对华打压措施就会消失

## 미중 패권경쟁의 경과와 전망

### 中美争覇的现状与前景

신범철

한국국가안보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전 외교부 정책기획관

申范澈

韩国国家安全战略研究院 外交安保所长, 前外交部政策计划管

# 미중 패권경쟁의 경과와 전망

신범철

(한국국가안보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전 외교부 정책기획관)

최근 세계질서의 변화는 우리에게 어려운 과제들을 던져주고 있다. G2로 불리던 미중간의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며 패권경쟁으로 치달고 있다. 두 강대국 간의 갈등은 주변국 간의 갈등으로 확산되고, 글로벌 차원에서는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기구의 문제해결 능력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신냉전이라는 표현이 빈번히 등장하는 바와 같이 작금의 국제정세는 미중간 갈등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미중관계는 오늘날 국제질서의 향배를 가르는 주요 변수다. 이미 구매력 기준으로는 국내 총생산(GDP) 세계 1위로 성장한 중국은 이제 미국과의 대결에서 물러섬이 없다. 시진핑 주석 집권 이후 중국은 '일대일로(一帶一路)' 프로젝트를 공격적으로 추진하면서 동남아 지역을 넘어 아프리카와 유럽 지역까지도 경제력을 바탕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해왔다. 이런 중국을 좌시할 수 없게 된 미국이 본격적으로 압박을 하면서 미중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특히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때리기에 경제적 압박 수단을 본격적으로 활용하면서 대립이 격화된 상황이다.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로부터 시작된 패권경쟁의 물결은 홍콩, 대만 문제 등으로 이어지며 그 파고가 더욱 높아졌고, 마침내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과 청도 주재 미국 총영사관의 폐쇄라는 극한 상황까지 벌어졌다. 나아가 미국은 첨단기술의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 기업들을 배제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중국은 미국의 편에서 서는 국가들에 대한 경제보복을 노골적으로 공언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중국의 도전을 국제규범의 범위 내에서 물리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민주당 바이든 후보가 집권하게 될 경우 미국의 대중정책에 커다란 변화가 예견된다. 바이든 당선인의 중국에 대한 압박 강도는 트럼프 대통령에 비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 방법이 다를 뿐, 미국 내 대중국 견제 필요성은 공화 민주 양당 모두가 공감하는 사안이기에 대선 이후에도 대중압박은 지속될 것으로 본다.

하지만 강대국간의 패권경쟁의 과정에서 전쟁이 불가피하다는 투키디데스의 함정은 미중경쟁에 적용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핵보유국 간에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핵균형 이론이 동

시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남중국해나 동중국해에서의 우발적 충돌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지만, 이 역시 확전 우려로 인해 미중 어느 쪽도 먼저 무력도발을 개시하기 어렵다. 그렇기에 양자간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보다는 외교적, 경제적 갈등이 더욱 빈번해질 것으로 보이며, 주변국 줄세우기 역시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미중관계의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한국은 선부른 선택 보다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미국의 군사력과 경제력은 당분간 도전받지 않는 1위 국가다. 한국으로서는 최적의 동맹 파트너다. 반면 중국은 제1의 무역 파트너다. 따라서 동맹국 미국의 요구가 있다 해서 쉽게 반중국 노선에 동참해서는 안된다.

외교관계에서 영원한 정답은 없다. 하지만 북한의 핵위협이 실재하는 현 상황에서 한국은 동맹을 강화하되 중국에 대한 압박 참여는 최소화해야 한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그래야 상황과 환경이 바뀌더라도 일관된 대외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향후 미국과 중국에게 공히 적용할 수 있는 원칙을 만드는 일이 시급하다.

# 中美争霸的现状与前景

申范澈

(韩国国家安全战略研究院 外交安保所长, 前外交部政策计划管)

最近, 世界秩序的变化给我们提出了艰巨的任务。全世界把中国和美国称为G2, 中美两国间的竞争日趋激烈, 并正在争夺霸权。随着两个大国之间的冲突, 影响到邻国之间的冲突而蔓延, 并且对世界贸易组织(WTO)之类的国际组织解决问题的能力产生了不利影响。近年来, 随着“新冷战”概念频繁出现, 当前的国际局势因中美间的对抗冲突而非常混乱。

中美关系是当前国际秩序方向的一个主要变量。以购买力平价为基础的中国的国内生产总值已成为世界第一, 中国不再从与美国的对抗中退出。自从习近平就任总书记以来, 中国积极推动“一带一路”建设, 将其政治影响力从东南亚拓展到非洲和欧洲等地区。美国无法忽视中国, 而给对方施加压力, 中美竞争日益加剧。

尤其是, 美国特朗普政府充分利用经济要素压制中国, 就中美关系持续恶化, 加剧对抗。从南海自由航行开始的竞争浪潮引发了香港和台湾等问题, 最后, 就形成了中国驻休斯敦总领事馆和美国驻青岛总领事馆关闭等极端局面。此外, 美国正试图将中国公司排除在全球高科技供应链之外, 而中国则公然宣称将对一些支持美国的国家进行经济报复。

与特朗普总统不同, 民主党候选人拜登表达了自己的决心, 就称“按照正常的国际准则来克服中国的挑战”, 那么如果拜登当选总统的话, 美国的对华政策将发生重大变化。与特朗普总统相比, 拜登对中国的压力可能会减轻。但是, 方法不同, 共和党 and 民主党都同意美国对华制裁的必要性, 即使在总统大选后, 其对中国的压力仍将继续。

但是, 一般认为, 在大国之间争夺霸权的过程中, 往往出现修昔底德陷阱, 而这似乎很难适用于中美竞争。这是因为按照核平衡理论, 两个有核国家之间不可能发生战争。即使中美两国不能排除在南海或东海发生意外碰撞的可能性, 但是由于担心战争的扩大, 两者都很难首先发起武力挑衅。因此, 中美两国间的外交和经济冲突将比直接军事冲突更加频繁, 而且将其拉入自己的阵营也会加剧。

在中美关系的不确定性大大增加的情况下, 韩国需要采取谨慎的态度而不应该做出盲目轻率的选择。美国的经济和军事实力是全球排名第一的国家。对韩国来说, 美国是最佳同盟, 而中国是第一大贸易伙伴。因此, 即便美国的要求, 也不应该轻易加入反华路线。

关于外交关系, 没有永恒的答案。但是, 在目前存在着朝鲜核威胁的情况下, 韩国应该加强同盟关系, 但还要应该尽量减少对华压力。越是困难时期, 越要坚守原则。这样, 即使情况和环境发生不断的变化, 也可以促进一致的外交政策。在这方面, 韩国需要制定将来可以适用于美国和中国的原则。

## 미중 전략경쟁과 한반도

## 中美战略竞争与朝鲜半岛

진창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전 세종연구소 소장

陈昌洙

世宗研究所首席研究委员、前世宗研究所所长

# 미중 전략경쟁과 한반도

진창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전 세종연구소 소장)

## 1. 미중 전략 경쟁의 변화

- 현재 미중무역전쟁은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내 정치엘리트들의 전략적인 판단에 의함. 미국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 21)에 따르면 중국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한 미국인 비율은 2017년, 2018년에는 47%였으나, 2019년에는 60%로 늘어났고, 2020년에는 66%로 더 늘었다. 2005년 조사 시작 이후 최악의 수치로 정권 출범 이후 20% 가까이 오른 것임. 중국의 국력이나 영향력을 '큰 위협'이라고 느끼는 미국인도 62% 됨.

- “중국을 원인으로 한 고용상실이나 무역적자 등 경제적 요인이 미국인들의 큰 우려. 이와 함께 중국의 인권정책이나 환경오염 등의 문제” 지적(Devlin, Kat, Silver, Laura and Huang, Christine. April 2020).

- 문제는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미·중의 갈등은 점차 체제 경쟁(이데올로기)의 양상으로 변화. 코로나 문제의 원흉은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고 강권을 펴는 중국의 공산당 체제 때문이라는 논리.

- 미·중의 대립이 통상, 하이테크, 해양 주도권 경쟁에서 체제(이데올로기) 갈등으로 확산되면 그 양상은 더욱더 격화.

- 바이든 대통령 탄생으로 주목받는 것은 대중 정책. 브레머는 미국이 대중 강경 자세를 지속하면서 충돌도 불사하는 상황이 올 것으로 전망. 미국의 대중국 정서는 강경론이 지배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은 초당파적으로 확대되어 있음.

- 미국은 특히 첨단기술의 우위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의 퇴출과 자국 산업기반 강화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음. 그리고 미국은 홍콩, 대만, 위구르, 남중국해 등에서 중국을 압박. 트럼프와 달리 인권문제, 환경문제 등으로도 압박

- 중국의 선택

1. 시진핑 및 공산당 체제에 타격을 주는 미국의 압박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응.
2.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고립을 최소화하고 친구 만들기. 국제적 중국 포위망 형성에 경계
3. 미국의 '중국 때리기'에 대응: 인민들의 애국심을 자극해 내부 결집과 통합.

## 2. 동아시아 국가의 딜레마

- 미국은 중국 대응의 일환으로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동참을 요구, 중국은 고압적인 외교 정책이나 군사력의 과시로 동아시아 국가를 압박.

첫째 미중의 하이테크 패권 경쟁이 격화. 미국은 중국이 하이테크 기술을 훔친다고 보고

이를 근원적으로 차단(decoupling)하려는 정책을 시행. 앞으로 미국은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 범위를 확대하려 하기 때문에 기업에 미칠 영향은 심각. 더욱이 한국은 미국과 동맹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연관되어 있는 공급망(supply chain)을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둘째 미중 갈등이 격화되면서 미국은 안보에서도 압력 증가. 향후 미중간 전략경쟁은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 대 중국의 일대일로 사이의 대결 양상으로 전개될 전망.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은 '자유롭고 개방된(free and open)' 인도-태평양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은 경제, 안보, 거버넌스에서 새로운 전략틀을 마련.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동맹국의 재정립을 통하여 임무와 책임의 분담까지 부담하게 됨.

셋째 미중 대립은 전략적 '포지셔닝'에 대한 깊은 고민. 미중 사이의 기계적인 중립이나, 미중 모두에게 협력해야 하는 논리는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됨. 중국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주변국에게 '줄 세우기'를 강요. 동아시아 국가들은 중국과의 관계에서 안보 위협을 줄이면서 경제 협력을 확대하려는 이중적인 목표. 한국으로서는 한·중 관계와 한·미 동맹을 동시에 발전시킨다는 구상은 자칫 이율배반적인 과제.

### 3. 한반도를 둘러싼 각국의 경쟁

- 동아시아의 당면 과제 : 미중의 전략경쟁에 따른 안보 불안, 핵개발을 추진하는 북한 등 이러한 국제환경속에서 어떻게 자국의 안보와 국익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표. 트럼프, 바이든의 북한정책과 중국정책에 대한 발언

트럼프	테마	바이든
오바마 정권은 김정은과 회담을 모색했지만 김정은은 응하지 않음. 자신이 성사된 북미정상회담의 외교적 성과를 강조	북한	'김정은이 핵전력을 축소하고 비핵화를 제대로 한다고 합의하지 않는 한 정상회담은 하지 않는다'
김정은과의 개인적 관계 덕분에 전쟁을 막았다.		북한의 미사일 개발능력에 대해 '이전보다도 쉽게 미국영토에 도달할 수 있게 되었다'
대중 관세를 자본으로 「국내의 농가에 280억 달러를 급여했다」라고 주장.	중국	'중국에게 국제적 룰을 지키게 한다. 우호국과 함께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

#### - 일본의 선택

스가 총리의 외교 정책은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중국의 확대에 일본이 대응할 수 없다고 보면서 가치를 공유한 국가들과의 연계를 확대시키는 전략을 추진

1. 자위대의 현재 방위능력을 유지·확충하면서, 미일동맹을 핵심으로 하는 기존 노선 견지



2. 인도 태평양 전략으로 미국과 동맹국가들과의 네트워크 강화
  - \* 환태평양 경제연합체협정(TPP)에 미국의 복귀를 추진,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바로 복귀 의욕은 그다지 나타내 보이지 않음. 민주당도 제조업은 물론이고 서비스업도 포함한 무역 자유화에 신중함.
3. 중국과의 연계를 강화. 중일 정상회담 추진
4. 북한은 한·미·일 3국의 공조를 기본으로 하면서 중국에 대해 본격적인 대북 설득
5. 북일 국교정상화 추진을 위해 납치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

#### - 북한의 선택

1. 핵 보유국가로서 인정을 목표
2. 핵의 교섭력을 높이기 위해 한반도의 갈등을 조장, 바이든 정권이 외교적인 자세를 갖 추기 전까지 적극적 공세 전략: 내년 1월, 3월에 군사적 위협을 과시
3.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 제재국면의 해소
4. 한국과의 관계는 유지하되 한국의 중간자 역할에 대해서는 불신

#### - 한국의 선택

1.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적극적 추진: 남북관계의 평화 공존
2. 한미관계의 강화로 동북아 안정에 기여
3. 중국과의 협력을 적극화
4. 한일관계의 갈등 관리
5. 중견국가로서 국제공헌

#### 4. 한일관계의 변화

- 역사적으로 악화되었던 한일관계가 개선되는 경우는 미국의 압력, 이익을 중시하는 여론의 변화, 그리고 전략적 필요성 등의 흐름이 거세질 때였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 으로 인해 한미일 협력이 높아짐, 한일관계 변화의 조짐이 나타남.

첫째 바이든 대통령의 등장은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짐.

둘째 현금화 조치로 인한 한일관계의 악화는 한일 양국 모두 피해를 입는다는 인식

셋째 북한 문제에 대한 한일 협력의 필요성.

넷째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는 한일 양국이 전략적 협력을 요구.

# 中美战略竞争与朝鲜半岛

陈昌洙

(世宗研究所首席研究委员, 前世宗研究所所长)

## 1. 中美战略竞争的变化

- 目前中美贸易战的源头不再是特朗普总统，而是政治精英作出的战略判断。美国民意调查机构皮尤研究中心（Pew Research Center 21）的民调结果显示，2017年和2018年47%的美国人对中国持“负面看法”，2019年高达60%，2020年增至66%。这是自2005年开始调查以来历年最高的比例，政府上台后约增加20%。62%的美国人将中国实力和影响力视为“最大威胁”。

- “美国担心中国带来的失业问题和贸易逆差等经济因素，同时还有中国的人权政策和环境污染问题。”（Devlin, Kat, Silver, Laura and Huang, Christine. 2020年4月）<sup>1</sup>

- 随着新型冠状病毒肺炎疫情（以下简称“新冠疫情”）的不断蔓延，中美矛盾逐渐演变成体系竞争（意识形态）。并将新冠疫情的罪魁祸首归结于限制言论自由、推行强权政治的共产党体系。

- 中美对立从争夺贸易、高科技和海洋主动权竞争拓展到体系（意识形态）之间的矛盾，且矛盾日益激化。

- 随着拜登总统上台，对华政策和布雷默备受瞩目，可见美国将继续保持对华强硬态度，甚至不惜与中国发生冲突。美国的对华强硬态度由鹰派主导，且获得跨党派的支持。<sup>2</sup>

- 美国为了确保高科技领域的优势，极有可能要求本国企业撤出中国和加大对本国产业的保护。同时，就香港、台湾、新疆和南中国海等问题向中国施压。有别于特朗普总统，拜登总统还可能就人权问题和环境问题向中国施压。

- 中国的选择

1. 积极应对美国针对习近平总书记和共产党体系的打压。
2. 将中国被国际社会孤立的影响最小化，广交朋友。警惕国际社会构筑对华包围网。
3. 应对美国“抨击中国”的做法：促进民众的爱国主义情绪，实现内部团结和整合。

## 2. 东亚国家陷入两难境地

- 美国可能要求东亚国家一起打压中国，中国则可能凭借实施“高压”政策和展示军事实力来威慑东亚国家。

第一，中美高科技霸权竞争升级。美国以中国窃取高科技为由，实施“脱钩”政策。今后，

---

<sup>1</sup> 从“华为”事件中可以看出，中美竞争正在拓展到AI、5G和大数据等未来核心科学技术的角逐。其包含了通过抢占和搭建平台，确保安全和军事领域优势的中美认知。特别是，中国没有将中美战略竞争视为“侵害利益”，而是当作涉及“生死存亡的问题”，并且为此不惜与美国正面对抗。

<sup>2</sup> 2020年5月，特朗普政府向议会提交《美国对中华人民共和国的战略方针》报告，整理对华经济和安全层面的担忧以及应对方案。议会也达成共识。在特朗普政权初期的2017年，美国也能谋求与中国和解，但却从2018年开始转向制裁和关税的强硬立场。最近，又开始封锁尖端技术。

美国会扩大对中国企业的制裁范围，从而企业会遭受重创。<sup>3</sup> 再加上，为了保持韩美同盟关系，与中国挂钩的供应链变化也会接踵而至。

第二，一旦中美矛盾升级，美国就会加大安全领域的施压力度。未来中美战略战争将成为美国“印度-太平洋战略”与中国“一带一路”的较量。“印度-太平洋战略”的核心是，为了保持“自由开放”的印度-太平洋，美国构建经济、安全以治理层面的战略框架。<sup>4</sup> 拜登总统将通过重塑美国与盟国的关系，进行任务与职责分工。

第三，中美对立是对战略“定位”的思考。在中国和美国之间保持中立或与双边进行合作的做法已经行不通了。因为无论是中国，还是美国都会强迫周边国家“站队”。东亚国家希望通过与中国保持关系，从而减少安全威胁，并加强经济合作的双重目标，韩国希望同步发展中韩关系和韩美同盟的构想都是伪命题。

### 3. 朝鲜半岛上的各国博弈

- 东亚当前面临的课题：如何在中美战略竞争造成的不安全局势、朝鲜推进核武器开发等国际环境下，确保本国的国家安全与利益。

表. 特朗普和拜登关于对朝政策及对华政策的发言

特朗普	主题	拜登
奥巴马政权曾邀请朝鲜最高领导人金正恩举行会谈，但是金正恩没有同意。特朗普强调自己促成的美朝首脑峰会的外交成果。	朝鲜	“在金正恩同意缩减核能力和采取具体的去核化步骤之前，不会与其举行首脑峰会。”
因为与金正恩私交甚好，才避免战争的爆发。		他对于朝鲜的导弹研发能力表示，“比过去更容易攻击美国领土”。
主张在对华关税中“拿出280亿美元的补贴去援助本国农民”。	中国	“让中国遵守国际规则，要与友邦一起发声。”

#### - 日本的选择

日本首相菅义伟的外交政策是，仅加强日美关系，无法应对中国的壮大，从而推进与共享价值国家加强合作的战略。

1. 保持和提高自卫队的防卫能力，坚持以美日同盟为核心的原有外交方针

2. 凭借“印度-太平洋战略”，加强与美国及盟国之间的地区联系

\* 推动美国重返跨太平洋伙伴关系协定（TPP），但是拜登总统没有立即重返的强烈意愿。民主党也对制造业和服务业等的贸易自由化持谨慎态度

3. 加强中日关系，推动中日首脑峰会

4. 韩美日三国合作应对朝鲜问题，并要求中国积极说服朝鲜

5. 为了恢复朝日邦交正常化，努力解决绑架问题

<sup>3</sup> 一旦认定是威胁美国国家安全及违反外交政策，就无法接触美国技术和市场。相反，中国的施压也在威胁着我们的生存环境。业界已经开始流传“华为将向三星电子要求交付智能手机用通讯半导体‘Exynos’”。

<sup>4</sup> 众所周知，“印度-太平洋战略”牵制的对象是中国。2019年，美国代理国防部长帕特里克·沙纳汉在香格里拉安全峰会上表示，“印度洋、太平洋是美国的第一战场”，为了加强美国与盟国以伙伴国家的安全，希望各国能够各司其职。

#### - 朝鲜的选择

1. 目标是承认朝鲜的拥核国地位
2. 为了提高核问题的交涉能力，在朝鲜半岛制造矛盾，在拜登政权放低外交姿态之前，采取积极进攻的战略：明年1月、3月展示其军事威胁
3. 加强与中国、俄罗斯的关系：缓解制裁影响
4. 保持与韩国的关系，但不相信韩国的仲裁者作用

#### - 韩国的选择

1. 积极推动朝鲜半岛和平进程：韩国与朝鲜和平共处
2. 加强韩美关系，促进东北亚繁荣稳定
3. 积极与中国展开合作
4. 化解韩日关系的矛盾
5. 作为中坚国家，需为国际社会作出贡献

#### 4. 韩日关系的变化

- 一旦改善积怨已久的韩日关系，美国的压力、重视利益的舆论变化以及战略必要性等就会凸显。随着美国拜登总统上台，韩美日三国将加强合作，韩日关系也会所有改变。

第一，拜登总统上任后，极有可能出面改善韩日关系。

第二，变通措施导致韩日关系恶化，韩日两国都要认识到这是伤敌一千、自损八百的做法。

第三，关于朝鲜问题的韩日合作必要性。

第四，中美战略竞争加剧时，需要韩日两国的战略合作。

# The Biden Administration' s North Korea Policy and the US-DPRK relations

전봉근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소장대행

田奉根

国立外交院外交安保研究所执行所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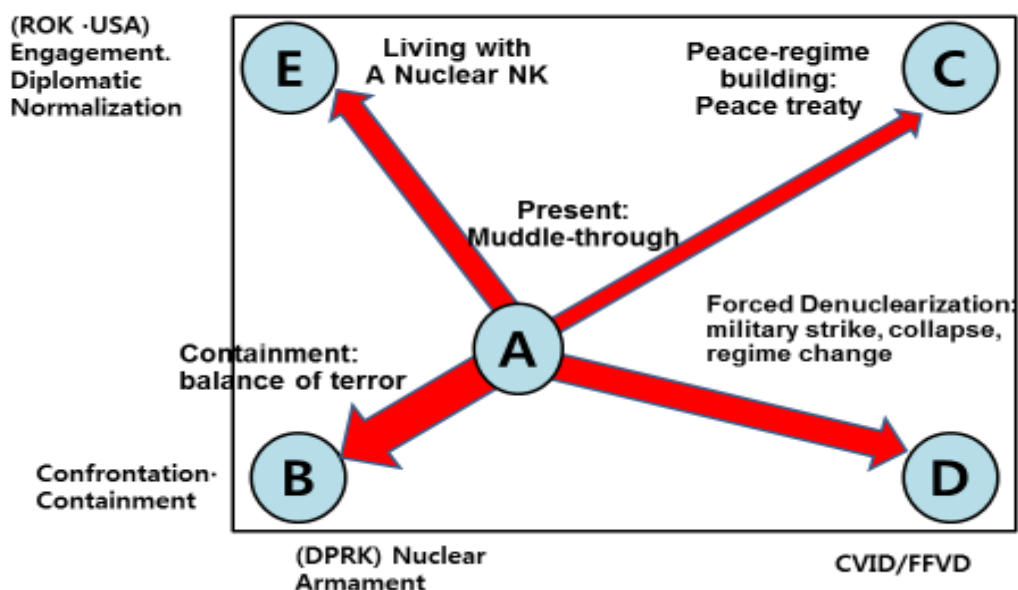
# The Biden Administration's North Korea Policy and the US-DPRK relations

Prof. JUN Bong-geun  
(Korea National Diplomatic Academy)

## Questions

- ❑ Under the Biden Presidency, what are prospects for the US-North Korea relations? Three critical variables here are Kim's policy toward the Biden Administration, Biden's NK policy, and Moon's intervention and ability to resume US-North Korea dialogue.
- ❑ What will be the Biden Administration's North Korea policy and denuclearization strategy? Will it be the return of the "strategic patience(containing and waiting)" or continuation of the summit and love-letter diplomacy of Trump or anything else?
- ❑ What will be responses of Kim to the Biden administration? Will North Korea return to the year 2017 and the era of brinkmanship diplomacy, or maintain the current moratorium of nuclear and missile test and expect to resume dialogue with the Biden administration?
- ❑ What should we do to resume the dialogue and denuclearization process with North Korea?

**None of these options have worked.  
But we have to choose & persist. What to choose?**



## **Biden's North Korea Policy?**

- Returning to 'strategic patience'?
- maybe not; 1)during the Obama period, SK had conservative Lee, Park gov't, 2)Biden's dialogue principle and desire to solve nuclear problem, 3)SK's appeal to resume a dialogue
  - Most Democratic U.S. experts support 1) dialogue w/ NK, 2) step-by-step approach, 3) nuclear freeze first
  - But US would retaliate NK provocations, as Biden never wants to be seen weak
- Holding a summit with Kim?
- not likely in the near future
- two conditions for the summit: working-level negotiations, progress for denuclearization
  - Suggestions to the Biden admin.
- To engage with NK asap before NK goes astray
- To refrain from slandering Kim or its regime
- To honor the 2018 Singapore joint statement
- To closely coordinate with SK and to cooperate with China

## **Kim's Responses to the Biden Admin?**

- Missile and nuclear tests again?
  - maybe: 1)to tame a new dialogue partner, 2)to attract US attention, 3)to up the ante for a nuclear deal, 3)technical needs of new weapons testing, 4)short-range missile testing was condoned by Trump, 5)my-way to a 'nuclear weapon state', 6)to retaliate US slandering, defaming
  - More likely to refrain from testing for the time being: 1)to avoid further sanctions, 2)to revive a nuclear deal, 3)no needs for testing for now.
- Kim's demands from Biden?
  - To ease economic sanctions to trade with SK and China
  - To provide humanitarian aids?
  - To honor the Singapore Kim-Trump joint statement?
  - To continue a dialogue with the US, including Kim-Biden summit

## **Revisiting the Denuclearization Strategy: Return to Basics**

- Painful pressure and real incentives should be combined together. Pressing for NK's 'decisive concessions' never worked. NK could walk away or resort to a brinkmanship tactic.
- As NK accumulates more nuclear weapons every year, we pay more for the

denuclearization tomorrow than today.

- It is not pressure but a 'coincidence/exchange of interests' that makes NK to agree and 'stay' in nuclear agreements. We need to create "an environment for denuclearization" to have a sustainable agreement.
- To achieve a denuclearization, all bilateral hostile relations(inter-Korean, NK-US, NK-Japan) in the region should be normalized in parallel.
- We need to choose a realistic, sustainable NK policy option; Regime change, balance of terror, living with the NK nukes are either too dangerous or expensive. We should consider Plan A(peace regime- building) combined with, and backed by Plan B (building a military deterrent)

### **Preparing for a working-level negotiation**

1) Roadmap: big deal vs. small deal

-US demanded 1) Youngbyon plus , 2) definition of denuclearization, 3) roadmap; In order to get NK answers, US needs to provide corresponding measures.

2) first deal: youngbyon vs. all nuclear material facility freeze

3) Verification: full declaration, inspection vs. nuclear disarmament

- DPRK walked away from every nuclear deals before verification.

4) Corresponding measures: sanction relief vs. security assurance

-DPRK needs both

5) Peace-Regime building: w/ peace treaty vs. w/o peace treaty

- Peace treaty involves such difficult issues as UNC, USFK, China's participation.



미국 대선이 중미전략 경쟁과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美国大选对中美战略竞争和韩半岛的影响

자칭귀

북경대 중외인문교류연구센터 주임, 북경대 국제관계학원 원장 및 교수

贾庆国

北京大学中外人文交流研究基地主任、北京大学国际关系学院原院长、教授

# 미국 대선이 중미전략 경쟁과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자칭귀

(북경대 중외인문교류연구센터 주임, 북경대 국제관계학원 원장 및 교수)

## 1. 미국 대선 결과는 중미 전략 경쟁 완화에 도움 될 것

### a) 바이든의 대외 전략

- i. 전후(戰後)부터 트럼프 취임 전까지의 대외 전략으로 회기. 즉 최소한의 비용으로 국제 질서를 보호함으로써 미국의 국가 이익을 지켜내고, 최대한 타국의 자원을 이용하여 국제 질서 유지에 드는 비용을 감축하려 할 것. 이를 위해 중국과의 협력 등 타국과의 협력을 요구 할 것
- ii. 국제 협력을 통한 국제 문제 해결을 중시 할 것. 예를 들어 코로나 19 대응, 인권 문제, 지구 온난화, 시장 접근(Market Access), 대규모 살상 무기 확산 제지 등
- iii. 정책 측면에서 이익의 최대화 라는 이성적 판단을 할 것. 트럼프 정부의 비이성적 정책에서 변화 될 것
- iv. 리스크 관리를 중시 할 것
- v. 국제 협력과 대화를 중시할 것
- vi. 정책 운영에 있어 확실성과 예측가능성이 증가 될 것

### b) 중미 관계에 미치는 영향: 긍정 및 부정적인 면이 상존

- i. 대중(對中) 압박은 지속 될 것
  1. 경쟁을 계속 강조 할 것
  2. 인권 문제가 더욱 중시 될 것
  3. 중국으로 기술 이전에 대한 통제가 더욱 심화 될 것
  4. 중국의 남중국해, 신장 위구르, 홍콩, 타이완 문제에 더욱 압력 가할 것
  5. 양국의 대등한 교류를 요구 할 것
- ii. 협력 범위의 확대
  1. 통상 관계는 정상화 될 것
  2. 리스크 관리 강화
  3. 안정적인 전략적 대화 요구

4. 협력을 통한 세계 문제 해결 요구: 코로나 19, 기후, 대규모 살상 무기  
환산금지 등
5. 인문 교류 확대

iii. 결국 새로운 마찰과 협력 관계가 야기 될 것

2. 중미 전략 경쟁 완화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 a) 기술 문제: 기술 이전 문제에 있어 한국의 협력을 요구 할 것
- b) 인권 문제: 한국이 미국과 함께 중국에 압력을 가하도록 요구 할 것
- c) 북핵 문제: 한국이 미국과 함께 북한에 압력을 가하도록 요구 할 것

# 美国大选：对中美战略竞争和韩半岛的影响

贾庆国

(北京大学中外人文交流研究基地主任、北京大学国际关系学院原院长、教授)

## 1. 美国大选结果有助于缓解中美战略竞争

### a) 拜登的对外战略：

- i. 回归战后至特朗普上台前的对外战略，即以最低成本维护国际秩序来维护美国的国家利益，要求最大限度地利用他国资源以减少维护国际秩序的成本，这就要求与他国合作，包括与中国的合作
- ii. 内容上更加重视通过国际合作应对新冠疫情、推动人权、扭转气候变暖、市场准入、制止大规模武器扩散等全球性挑战
- iii. 政策更加理性，也就是利益最大化。很可能改变特朗普政府前期的一些非理性的做法。
- iv. 更加重视危机管控
- v. 更加重视国际对话与协商
- vi. 做法上确定性或可预见性增加

### b) 对中美关系的影响：正反两个方面都有

- i. 对中国的压力会继续
  1. 继续强调竞争
  2. 人权问题突出
  3. 继续严控对中国高科技转移
  4. 继续在南海、新疆、香港和台湾问题上施压
  5. 要求双边交流对等
- ii. 合作空间也会增加
  1. 经贸关系有望趋向正常
  2. 加强危机管控
  3. 要求战略稳定对话
  4. 要求合作应对全球性挑战：新冠疫情、气候、限制大规模杀伤性武器扩散等
  5. 鼓励人文交流
- iii. 最终可能导致一种新的冲突与合作关系

## 2. 中美战略竞争的缓解对韩半岛的影响

- a) 高科技问题：要求韩国合作限制高科技转移
- b) 人权问题：要求韩国一起对中国施压
- c) 朝核问题：要求韩国一起加强对朝鲜施压

미중관계 속 국제질서 경쟁  
中美战略竞争与朝鲜半岛

공커위

상해 국제문제연구원 아태연구센터 주임

龚克瑜

中国上海国际问题研究院亚太研究中心主任

# 미중 전략경쟁과 한반도

공커위

(상해 국제문제연구원 아태연구센터 주임)

세계는 변혁과 혼란의 신(新)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중미 양국 간 힘의 격차와 전략적 기반, 대내외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미국은 아시아 태평양 전략을 끊임없이 조정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을 '통제'하고 '견제'하려는 성격이 짙다. '정치 새내기' 트럼프가 집권한 이후 중미 관계의 기복은 지역 정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은 동맹국과의 관계를 전략적으로 강화하고, 동맹국의 본질과 의미를 심화하며 동중국해, 대만 해협, 남중국해 분쟁을 이용해 중국에 제약을 가하고 있다. 경제 분야에서 미국은 '아메리카 퍼스트'와 미국의 이익을 내세워 중국과의 무역전도 불사했고, 미국이 '화웨이 죽이기'에 나서면서 중미 갈등은 과학기술전으로 비화하고 있다. 향후 금융 전쟁, 환율 전쟁, 산업 전쟁으로 격화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군사 분야에서 미국은 전략적 중심지를 동쪽으로 이동시키고, 군사 동맹 관계를 강화해 군사적 배치와 지역 개입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미국 대선이 시작되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통상, 과학기술, 인적교류 등 분야에서 중국을 겨냥해 근거 없는 제재와 압박을 가하고 있다. 또한, 홍콩, 대만, 신장, 티베트, 인권 등 중국의 영토 주권과 민족의 존엄이 걸린 핵심 이익에 대해 고의적인 증상모략을 일삼았다.

중미 관계 발전의 변수는 주로 미국 측, 특히 미국 자체와 미국의 지도자들(대통령과 참모진 등)에게 있다. 미국 자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면 2020년 이후 미국은 공중 보건 위기, 인종·민족 위기, 정쟁 위기라는 '삼중고'에 시달리는 중이다. 또한, 오락가락하는 대선 결과로 인해 양당과 각파, 국민의 분열과 갈등이 더욱 심화하고 있다. 미국의 지도자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면 대통령의 성격과 외교 정책 등은 중미 관계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중국에서는 중미 간 전략경쟁과 힘겨루기가 불가피하고, 장기적이며 복잡해지고 있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중국은 중미 경쟁이 미국과 소련 간의 제로섬 게임과는 다르다고 여기고 있으며, 중국은 미국을 바꾸고자 하는 뜻도 힘도 없고 미국을 대체할 생각은 더욱 없다고 강조한다.

남북 양국에 중국과 미국은 모두 중요한 국가이기 때문에 한국과 북한은 중미 전략경쟁

구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우선, 중미 관계 발전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한국은 ‘중국이나 미국이나’, ‘경제이나 안보이나’, ‘다자주의이나 일방주의이나’, ‘함께할 것이냐 혼자 갈 것이냐’ 등 다양한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으며 중국과 미국 사이에 낀 ‘샌드위치’ 신세이다. 최근 몇 달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국방부 장관 등 고위 관계자들이 몇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잇달아 미국을 방문했다. 한국 측의 목표는 미국 정부 및 정계와 한미 동맹 강화를 약속하고, 북미 및 남북 대화 재개와 한반도 경색국면 타개를 도모하며 평화 협정 및 비핵화 프로세스 방안에 대해 소통하는 것이었다. 현 상황을 살펴보면 한미 간 잦은 접촉은 종전 선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방위비 분담 문제에서 양국 간 이견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미국의 강력한 압박으로 인해 한국은 딜레마에 빠져 있다. 즉, 안보 강화와 지역 안정을 위해서는 미국의 도움이 필요하고, 중국과의 긴밀한 무역 통상 관계를 끊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

또한, ‘아메리카 퍼스트’로 대표되는 일방주의가 만연하고 보호무역주의가 대두되면서 자유무역 체제에 충격을 주고 있다. 트럼프는 미국의 국익을 이유로 한국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인상할 것을 요구했으며, 자유무역협정(FTA), 통상 협력, 군사·안보 지원 등을 무기로 동맹국에 위협을 가하고 복종할 것을 강요했다. 국제 질서와 구도의 재편, 대국 관계의 격변, 국제 규범의 재형성 등 일련의 변혁 속에서 중미 무역 갈등으로 인한 악영향을 줄이기 위해 중한 양국은 여러 지역에서 다각적, 다층적 협력을 전개해야 한다.

북핵 문제, 북미 관계와 관련해 트럼프와 바이든의 외교 스타일은 확연히 다르다.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북한’과 ‘김정은’은 여전히 트럼프에게 매력적인 이슈이다. 북미 양국이 포괄적 합의에 도달하기는 어렵겠지만, 트럼프는 계속해서 김정은과 좋은 관계를 강조하며 ‘톱다운(top-down)’ 방식의 북미 대화 및 협상을 추진할 것이다. 바이든은 앞으로 6개월에서 1년 동안 정책을 검토하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며, 이 기간에 미국은 대북 제재와 압박을 강화하고 북한 고립 정책을 유지할 것이다. 바이든은 트럼프보다 동맹국의 역할을 더 중시하고 있지만, 한국이 2021년 하반기부터 대선 국면에 돌입하게 되므로 북핵 문제에서 한미 공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中美战略竞争与朝鲜半岛

龚克瑜

(中国上海国际问题研究院亚太研究中心主任)

世界正在进入一个以变革和动荡为主要特征的新时代。随着中美两国实力对比、战略基础、内外环境的变化，美国不断调整亚太战略，“制衡”“牵制”中国的色彩浓厚。“政治素人”特朗普上台后，中美关系的起伏直接影响到地区局势。在东北亚地区，美国在战略上，加强与盟国的关系，深化盟友的实质和内涵，借助东海、台海和南海问题对中国形成制约；在经济上，美国以美国优先、美国利益为口号，不惜与中国展开贸易战，并通过封杀华为公司等升级为科技战，将来还可能会升级到金融战、汇率战、产业战等；在军事上，美国战略重心继续东移，强化军事同盟关系，加快军事安全部署和介入地区。随着美国大选的进行，特朗普政府更是在经贸、科技、人员交往等领域接连对中国无端设限和打压，在香港、台湾、新疆、西藏、人权等涉及中国领土主权和民族尊严的核心利益问题上蓄意攻击抹黑。

中美关系发展的变量主要在于美国方面，主要是美国本身和美国领导人（总统及其主要幕僚等）。从美国本身来看，2020年以来，美国深陷三重危机，也就是公共卫生危机、种族民族危机、党派政治危机，而大选结果的纠结进一步深化了两党、各派和民众的撕裂和矛盾。从美国领导人来看，总统个人性格、外交政策等都会对中美关系产生不同的影响。

虽然中国方面普遍认为，中美关系的战略竞争博弈已经呈现必然化、长期化、复杂化的趋势，但是，中国方面还是认为“中美博弈不是美苏你死我活的对抗”，中国方面也强调“中国无意无力改变美国，更不想取代美国”。

对朝鲜半岛的国家而言，中国和美国都是至关重要的国家，不得不面对中美战略竞争的格局。一方面，由于中美关系发展前景不明，韩国面临“中国还是美国”、“经济还是安全”、“多边还是单边”、“同舟共济还是独善其身”等不同选择，不得不夹缝中生存。近几个月，韩国青瓦台国家安保室室长、国防部长等多名高官陆续访问美国，希望达到几个目的，包括争取美国政府和政界强化美韩同盟的承诺；试图重启朝美、朝韩对话，打破半岛僵局；推出和平协定、无核化进程等方案与美方沟通。从现实情况看，美韩频繁接触暴露出美韩在终战宣言、移交战时作战指挥权和承担防卫费等方面的分歧。面对美国的重压，韩国进退维谷，既需要美国在加强安保防卫和稳定地区局势方面的帮助，也无法切断与中国密切的经济贸易往来。

另一方面，以“美国优先”为代表的单边主义横行、贸易保护主义泛起，冲击着自由贸易体系。特朗普还频频以美国国家利益为由，对韩国提出大幅增加美国驻军“保护费”的要求，并以



自由贸易协定、经济贸易合作或者军事安全援助等为要挟，逼迫盟国就范。在全球面临秩序转换、格局调整、大国关系剧变、国际规则重建等一系列变革中，为减少中美贸易摩擦所带来的不利影响，中韩需要在多领域、多层面、多地区的合作。

就朝鲜核问题和朝美关系而言，特朗普与拜登的外交风格截然不同，特朗普如果继续入主白宫，“朝鲜”、“金正恩”仍然是对特朗普颇有吸引力的议题。虽然朝美之间很难达成一揽子协议，但是特朗普仍将强调与金正恩的良好关系，“自上而下”继续与朝鲜对话谈判。拜登方面则可能需要半年到一年的政策回顾和反思期，在此期间美国会强化对朝制裁与施压，并维持对朝孤立政策。拜登虽然比特朗普更加重视盟国的作用，但是由于韩国2021年下半年将进入总统选举的预热，美韩在朝核问题上的合作并非易事。

미중 갈등 하에 한반도에 대한 새로운 파워게임  
中美关系中的国际秩序之争

정지용

복단대 조선한국연구센터 주임

郑继永

上海复旦大学朝鲜韩国研究中心主任

# 미중 갈등 하에 한반도에 대한 새로운 파워게임

정지용

(복단대 조선한국연구센터 주임)

## 1. 외부 환경 요인의 침투

한반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외부 요인은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와 강대국 간의 경쟁이다.

COVID-19와 더불어 미중 양국의 경쟁 구도하에 한반도를 포함한 향후 글로벌 형세는 4가지 측면에서 큰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첫째, 미중 경쟁은 현재 전면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구조적 경쟁으로 변화하였다. 둘째, COVID-19의 영향으로 전 세계가 이미 분열되었고, 세계는 COVID-19로 인해 불가역적으로 분리되었으며, COVID-19이전과 이후의 세계로 나뉘게 되었다. COVID-19로 인한 분열과 재구성이 가져올 영향은 상당히 광범위할 것이며, 국제 관계, 국제 정치의 논리, 패러다임, 이론, 방법 등에 있어서도 엄청난 변화를 겪을 것이다. 향후 국제 정세도 이러한 변화를 기반으로 이해하게 될 것이다. 셋째, 변화된 미중 관계와 COVID-19라는 두 변수는 한반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반도는 항상 외부 요인, 특히 강대국의 영향에 민감하다. 넷째,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한반도는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한반도에 대한 미중 양국의 전략은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전략은 변형되었고, 변혁이 이루어졌으며, 변화를 겪었다고 말할 수 있다. 첫째, 미중 관계가 변화하는 가운데 한반도의 역할이 증대되었고, 둘째, 한반도 정책에서 일부 문제에 대한 편중 현상을 바로잡아 균형을 이루었으며, 셋째, 문제에 대해 반응하는 식의 대응 외교 전술이 변화하고 있다. 한반도와 관련된 외교문제의 중요도가 높아졌고, 한반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미국 문제'로 간주했던 부분을 '한반도 문제'로 바라보기 시작했으며, '한반도 문제'를 '미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미국 역대 행정부가 유지해왔던 기본 입장, 즉, '핵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면 논의하지 않겠다'라는 다소 완고한 입장이 변화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첫째, 가장 분명하게 조정된 부분은 남한과 북한을 동시에 이용하여 중국을 억제하려고 한다는 점이다. 둘째, 미국은 일본의 역할을 강화시키고, 일본을 끌어들이려는 전략을

채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한국을 덜 중요하게 생각하고 한반도 문제에 더 많이 개입하려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셋째, 경제와 같은 비전통안보 요소를 보다 유연하게 사용하여 한국을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다. 넷째, 한반도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중국의 참여도를 줄이려 하고 있다. 다섯째, 핵 포기가 협상의 전제 조건으로 변경되었다는 점이다.

COVID-19 발생은 한반도를 분열시켰다. 첫째, COVID-19 는 동북아의 지정학적 긴장을 고조시켰으며, 국제 정치에서 심각한 분열을 가져왔다. 둘째, 미중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반도의 전통적 안보 문제는 계속 보류되거나 관심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셋째, COVID-19 는 동북아 국가들 간의 본래 존재해왔던 지정학적으로 인한 차이를 더욱 벌려놓았다. 넷째, COVID-19 는 한국, 미국, 일본 등 국가의 국내 정치 투쟁을 심화시켰다. 다섯째, 기술 장벽은 주요 행위자들 간의 정책적인 조정과 협상을 약화시켰다.

COVID-19 의 영향으로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상당히 억압받고 있으며, 그 중요도 또한 낮아지는 경향으로 가고 있으며, 특히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던 북핵 문제와 북미관계도 갑작스럽게 냉각기를 갖게 되었다.

## 2. 국내 정치에도 충격 노출

COVID-19 로 인해 만들어진 새로운 환경은 관리에 대한 문제를 가져왔다. 새로운 환경과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충돌하게 되면서 또 다른 새로운 변수가 생겨날 것이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그 어려움이 더욱 증가할 것이며, 이에 대한 관리 부실은 잠재적인 안보 위기를 유발할 것이다.

국제형세의 변화 속에서 북한은 COVID-19 에 대한 방역, 경제 회복, 민생이라는 세 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다.

한국은 외교적으로 여러 방향에서 위협받고 있으며, 미중 경쟁의 딜레마로 인해 위협으로부터의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동시에, 남북 관계 회복을 위한 한국의 노력은 등한시되고 있다. 한국이 북한보다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한국의 내정과 외교 부분에 심각한 제약이 되고 있다. 더욱이 최근 한국의 국내 정치는 북한 및 미국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 3. 한반도의 새로운 파워게임

COVID-19 로 인해 한미 양국이 기존에 중요하게 논의해 왔던 전통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도 영향을 받게 되면서, 한반도와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해 새로운 플랫폼이 등장할 것으로 본다.

북한 문제가 보여준 한계 효익은 점점 낮아지고 있고, 북한과 미국의 의지마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 바이든 후보가 만약 당선된다면, 미국이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대북 정책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2022 년 한국 총선이 다가옴에 따라, 한국의 국내정치에 대한 관심 증가와 더불어 북한 문제를 내부분제화하는 전통적인 관행은 한반도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것이다.

첫째, 미중 경쟁이 심화되면서 한반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둘째, 미중 경쟁 속에서 미국의 '우선주의' 정책은 한미관계, 미일관계, 한미일관계에 균열을 일으켰다.

셋째, 한반도에 대한 미중 양국의 경쟁구도는 한반도를 더욱 복잡한 상황으로 만들었다.

넷째, 시간은 중국과 미국이 아닌 한반도에 있다.

다섯째, COVID-19 가 향후 한반도 문제를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 줄 것이다.

#### 4. 결론

COVID-19 와 미중 경쟁은 한반도에 새롭게 나타난 두 가지 외부 요인이자 변수이다. 남북한의 대응과 양측의 상호 작용은 향후 한반도의 새로운 안보 수준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첫째, COVID-19와 미중 경쟁이라는 상황하에 중국과 한국은 COVID-19 해결을 위해 상호 협력할 것이지만, 동시에 미중 간의 경쟁으로 인해 일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COVID-19 에 대한 한중 간의 협력과 미중 경쟁으로 인한 안보 문제에 대처하는 방법은 향후 한반도의 안보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한반도 내 핵 문제는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며, '보류와 용인', '관용과 제한'이라는 두 가지 모순된 형태가 발생하면서 새로운 딜레마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딜레마는 향후 동아시아 국제 관계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셋째, 미중 전략경쟁에서 한국이 어떻게 스스로 대처할 것인가는 한반도 자체의 안보 수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어느 한쪽 편을 선택한다면 대내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그 결과 또한 상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넷째, 미중 관계의 거대한 변화와 새로운 안정된 환경의 형성은 상기한 세 가지 문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북핵 문제와 지역 변화에도 새로운 불확실성을 가져다 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동적 변화와 새로운 불확실성의 증가는 나선형의 형태로 상호 영향을 미칠 것이며,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 双重冲击下的朝鲜半岛新博弈

郑继永

(上海复旦大学朝鲜韩国研究中心主任)

## 一、外部环境要因的渗透

对朝鲜半岛影响最大的外部因素就是新冠疫情与大国竞争。

全球新冠疫情加上中美竞争激烈的情况下，未来的全球形势，包括朝鲜半岛在内将发生四个方面的很大变化。第一，中美之争现在已经是世界全局性、结构性竞争。第二，新冠肺炎的冲击已经撕裂了全球，世界将因新冠疫情而出现不可逆转的物理分隔，分割成为疫情前的世界和疫情后的世界，带来的分化与重组影响深远，思考国际关系与国际政治的逻辑、范式、理论与方法都将出现巨大变革，理解未来的国际形势，也将基于这一区分。第三，中美关系的这种变化与新冠疫情的冲击深切影响朝鲜半岛。朝鲜半岛一向对外部因素，尤其是大国因素的影响敏感。第四，朝鲜半岛在如此的变化中处境特殊。

在此情境下，中美两国对于朝鲜半岛的策略都出现了分化。

**从中国来看，对朝鲜半岛的策略或者战略发生着新颖的转型、变革、变化。**第一，中美关系的变化中，朝鲜半岛作用增大，第二，对朝鲜半岛政策进行纠偏与平衡。第三，应激反应式的外交战术正在改变。提升朝鲜半岛整体外交的地位，并不断将朝鲜半岛“美国问题化”的趋势扭转成为“朝鲜半岛问题化”，将之视为解决包括美国问题在内的外交工具。

**从美国角度看，在朝鲜半岛政策上基本改变了过去那种“非核不谈”的顽固立场。**第一，最明显的调整，同时利用朝鲜和韩国两个变量遏制中国。第二，重点提升日本的作用，采取拉拢策略，而相对更为忽视韩国，更多采取干涉策略。第三，更灵活地使用经济等非安全因素全方位地胁迫韩国。第四，推回中国在朝鲜半岛上的参与度。第五，改变了弃核作为谈判前提的认识。

新型冠状病毒大流行也割裂了朝鲜半岛。首先，疫情加剧了东北亚的地缘政治紧张局势与国际政治的严重割裂。其次，中美竞争加剧的背景下，朝鲜半岛传统安全议题不断被搁置或失焦。第三，疫情加剧了东北亚国家之间现有的地缘政治分歧。第四，疫情加剧了韩国、美国和日本的国内政治斗争。第五，技术的壁垒无形之间将削弱关键行为体之间的政策协调和磋商。

在新冠疫情影响下，朝鲜半岛的经典传统安全状态被压抑和忽视，如一直处于世界焦点的朝核问题、朝美关系也骤然冷场。

## 二、内向化政治震动的外溢

新的环境带来了诸多管理难题。新环境、旧难题的冲撞将带来新的变数，也进一步增加了解决问题难度，管理不善则会引发、拉升潜在的安全危机。

在当前的国际形势下，朝鲜面临着三个方面的问题：防疫、经济恢复、民生。

韩国在外交上面临着多个方向的夹击，因在中美竞争问题上出现两难选择而无法找到出路。与此同

时，韩国试图恢复朝韩关系的努力被忽视。韩国的对朝优势无法发挥成为其内政与外交的严重制约。再者，新近的韩国内部政治冲击了对朝关系、对美关系。

### 三、朝鲜半岛的新博弈

除了疫情之外，美韩还在诸多传统问题上也受到了疫情的冲击与影响，朝鲜半岛各方的博弈将出现新的平台。

朝鲜问题表现出来的边际效益越来越低，朝美双方的意愿都大幅走低。而正在选战中的拜登也声称，一旦当选将改变特朗普的对朝政策。

对于韩国更是如此，随着2022年韩国大选的临近，对于内政的关注，以及将朝鲜问题内政化的传统做法无疑会使朝鲜半岛问题更为复杂化。

首先，中美竞争的加剧对朝鲜半岛产生了深远影响。

其次，在中美竞争之中，美国的“美国优先”政策也使得韩美、美日、韩日关系出现裂痕。

第三，中美对朝鲜半岛的竞争性战略价值重现推动复杂化博弈。

第四，时间在朝鲜半岛，而非中美。

第五，疫情将可能把朝鲜半岛问题推入到新的纪元。

### 四、结论

新冠疫情与中美竞争作为朝鲜半岛最大的两个外部因素与新引入变量，朝鲜与韩国的应对与互动将会左右未来朝鲜半岛新的安全水平。首先，新冠疫情与中美竞争的情况下，中韩会因疫情出现合作并因中美竞争出现一些问题，如何处理这样的疫情合作与安全问题将会影响未来的朝鲜半岛环境；其次，朝鲜半岛核问题将出现新的影响性变量，搁置与纵容、宽容与限制都将出现新的困境，这样的转型会给未来的东亚国际关系带来何种变化也有重要意义；第三，韩国在中美竞争中如何自处，将会深刻影响朝鲜半岛本身的安全水平，选边站队的抉择带来的是内外同时变化，又相互影响；第四，中美关系的巨大变化与形成新的稳定无疑会影响以上三个问题，所带来的朝核问题与地区变化也会形成新的不确定性。因此，这些动态变化与新的不确定性的增加，都是螺旋加速互动影响，也会带来革命性变化。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발전에 대한 고찰  
中美关系中的国际秩序之争

파오동선

연변대 국제정치연구소 주임, 연변대 국제정치학과 교수

朴东勋

延边大学国际政治研究所主任、国际政治系教授



#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발전에 대한 고찰

파오동신

(연변대 국제정치연구소 주임, 연변대 국제정치학과 교수)

중한수교 이후 28년이 흘러, 곧 '이립(而立)의 해'를 맞이하게 된다. 그동안 경제, 정치, 인문 등 분야의 전방위적·압축적 성장은 중한 양국과 양국 국민에게 중요한 이익을 안겨 주었으며, 지역 안정 및 발전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와 더불어 중한 관계 자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양국 관계가 여전히 민감하므로 중한 양국은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함께 수호해야 한다.

## 협력 모멘텀 약화, 중국에 대한 한국의 전략적 의구심 증폭

첫째, 중한수교 28년의 발전 과정을 돌이켜보면 양자관계 발전을 이끈 내재적 성장동력이 변화하며 점차 약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유가(儒家) 사상을 핵심으로 하는 문화 정체성은 1990년대부터 동아시아 국가들이 공통성을 찾고 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의 부상과 중국 시장경제의 빠른 발전 속에서 리관유, 김대중 등이 제안한 '유교 시장경제'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이와 관련한 주장은 설 자리를 잃었고, 대신 '경제 압창석(压舱石: 밸러스트 스톤, 선박의 균형을 잡기 위해 사용하는 돌)'이념이 대두되었다. 즉, 경제 관계의 빠른 발전과 이와 관련한 대규모 인적 교류가 중한 관계를 안정시키는 돌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2019년 현재 중한 교역액은 2,846억 달러로, 중국은 여전히 한국 최대 교역대상국이다. 하지만 중국 경제가 발전하면서 경제 성장동력에 대한 한국의 인식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 내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이미 중국 시장에 진출한 한국의 노동집약형 기업들이 해외에서 새로운 시장을 찾고, 중국 산업구조가 업그레이드되면서 기술영역과 시장에서 양국의 상호 보완적 관계는 경쟁 관계로 바뀌었다. 물론 전 세계 인구의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인구 대국' 중국은 여전히 한국에게 매력적인 시장이지만, 중한 경제의 전통적 협력 모델은 전환이라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

둘째, 세계정세의 변화로 인해 한국의 전략적 의구심이 깊어지고 있다. 우선 중미 간 구조적인 갈등이 격화되면서 한국에 큰 압박을 주고 있다. 문재인의 정책 스타일은 자주성이 뚜렷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여전히 한미 동맹을 근간으로 삼고 있다. 한국은 중미 갈등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중한 사이의 여러 이견을 능동적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양자 간 협력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다음으로 주변 대국의 부상에 대한 전략적 의구심이 존재한다. 중한 사이에는 영토 분쟁이 없고, 이는 안보 문제에서 양국이 안정을 유지하고 우호를 증진할 수 있는 중요한 초석이 되었다. 한국의 전략 전문가들은 중국은 한국의 최대 경제 동반자로서 한반도 문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해결하는 데 중요한 영향력을 지닌 국가이기 때문에 한국은 중국과 적극적으로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안보 위협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장기적으로 볼 때, 한국과 인접한 거대 대륙 국가의 부상은 향후 한국에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셋째, 대북정책 조율에 전략적 공감대가 부족하다. 중한 양국은 북한 문제에서 상호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현 정책에서도 유사성을 보인다. 그러나 북한 문제에서 양국은 이익의 우선순위가 서로 달라 중국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한국의 전략적 의구심은 여전히 남아 있다. 중국은 한반도(북한)의 안정을 최우선시하여 북한의 전략적 지위를 중시하는 반면, 한국의 궁극적인 목표는 한반도 통일이기 때문에 한국은 나날이 긴밀해지는 중북 관계와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에 의구심을 지우지 못하고 있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정책적으로 남북러 3자 경제 협력과 남북미 3자 안보 협의에 방점을 두고 있다.

양자 협력 측면에서 보면 약간의 체제적 결함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중한 양국이 모두 동아시아 국가 간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양자 협력을 중심으로 협력을 전개해왔을 뿐 성숙한 다자 협력 체제를 구축하지 못했다. 또한, 한국이 대통령 5년 단임제를 시행하고 있어 협력 전략 구상의 변동 폭이 크고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다. 이와 더불어 한반도 문제가 복잡하여 전략 구상은 현실과 큰 괴리가 있으며 협력의 이면에는 주도권 경쟁 관계가 자리 잡고 있다. 요약하자면 중한 협력에는 정치외교적 비대칭성, 대국 굴기에 대한 주변국의 전략적 의구심 심화, 양자 간 전략적 공감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체제와 이념 등 많은 걸림돌이 남아있다.

### 중한 전략적 협력 추진에 대한 몇 가지 고찰

첫째, 경제 협력을 위한 새로운 길을 끊임없이 개척하고 새로운 협력 동력을 모색하며, 양자 간 실질적 협력을 강조해야 한다. 둘째, 긍정적 여론을 형성해 중한 관계의 회복 및 유지를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무의미한 언론 논쟁으로 인해 양국 국민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지지 않도록 하며 여론이 양국의 정치 관계를 발전시키는 건설한 기초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셋째, 비전통적 안보와 전통적 안보의 협력 체제를 동시에 구축해야 한다. 넷째, 중한일 협력 플랫폼을 1.5트랙 체제로 확장해야 한다.

# 关于发展中韩战略合作伙伴关系的若干思考

朴东勋

(延边大学国际政治研究所主任、国际政治系教授)

中韩建交28年，即将进入“而立之年”。此间，双方在经济、政治、人文等领域得到了全方位、跨越发展，为两国和两国人民带来重要利益，为维护地区稳定发展发挥了重要作用。与此同时，由于中韩关系本身的非对称性特点，双边关系仍具有较大的敏感性，中韩战略合作伙伴关系需要共同呵护。

## 合作动力在弱化，韩国对华战略疑虑在加深

第一，纵观中韩建交28年发展历程，推动双边关系发展的内在动力发生变化，且呈现动力逐步被弱化趋势。早在20世纪90年代，儒家思想为核心的文化认同成为东亚国家寻求共性、加强合作的重要基础。以亚洲“四小龙”的崛起以及中国市场经济迅速发展为背景，李光耀、金大中为首所提出的“儒家市场经济”最具代表性。不过，1997年东亚金融危机爆发以来，相关提法失去“市场”，取而代之的就是“经济压舱石”理念，亦即“经济关系的快速发展和与此相关的大规模人际交往成为稳定中韩关系的压舱石。”截至2019年，中韩贸易规模2846亿美元，中国仍是韩国最大贸易伙伴国。但是，随着中国经济发展，韩国在经济动力方面的认知开始发生变化。比如：随着中国国内劳动力成本的上升，已进驻中国市场的韩国劳动密集型企业开始在海外寻求新的市场；随着中国产业结构的升级，双方在技术和市场上的互补关系转变为竞争关系，等等。当然，世界五分之一人口市场大国对韩国来说仍然有着巨大诱惑力，但中韩经济传统合作模式面临转型的问题。

第二，世界变局加深韩国战略疑虑。一是中美结构性矛盾激化给韩国带来的巨大压力。文在寅的政策风格表现出了显著的自主性，但本质上仍然是以美韩同盟为支柱，在中美博弈中保持战略模糊性，主动管理中韩之间的各种分歧的同时，要努力拓展双边合作；二是对周边大国崛起存有战略疑虑。中韩之间不存在领土纠纷，这是安全问题上中韩保持稳定、增进友好关系的重要基石。在韩国战略界有学者指出：中国是韩国最大经济伙伴，有效管理和解决半岛问题方面具有重要影响力的国家，因此韩国应积极维护和发展友好关系，追求安全威胁最小化；但是从长远角度来看，“临近于韩国的一个巨大大陆性国家的崛起，将来对韩国有可能是个‘潜在性威胁’”。

第三，对朝政策协调缺乏战略性共识。中韩两国在朝鲜问题上保持相互协调关系，而且目前政策取向方面存在一定的相似性。但由于针对朝鲜问题双方利益排序并不一致，韩国对中国半岛

政策仍存有战略疑虑。中国把半岛（朝鲜）稳定当首要，并重视朝鲜战略地位；韩国所追求的最终目标是半岛统一，对中朝关系的拉近以及中国对朝鲜“影响力”存有疑虑。目前，文在寅政府在政策上更倾向于韩朝俄三方经济合作以及韩朝美三方安全磋商。

从双方合作层面来看，存在一些机制性缺陷。比如：中韩两国都在强调东亚国家之间合作，但至今合作仍然以双边合作为主线，尚未构建比较成熟的多边合作机制；韩国实行总统五年单任制，合作战略构想变动幅度较大，缺乏政策一贯性；由于半岛问题的复杂性，战略构想与实际进展之间存在较大距离；合作背后存在主导权竞争关系，等等。概括来讲，中韩合作存在不少阻碍因素：政治外交方面非对称性，加剧周边国家对大国崛起的战略疑虑；政治体制和理念影响双方战略共识的形成。

### **关于推动中韩战略合作的若干思考**

第一，不断拓展经济合作新路径，探索新的合作动力，双方合作要强调务实；第二，积极引导舆论，为修复和维护中韩关系打造氛围，不要让无谓的媒体争论伤害两国人民感情，让民意基础成为发展两国政治关系的坚实保障；第三，构建非传统安全与传统安全合作机制要同时并举；第四，有必要把中韩日合作平台拓展为 1.5 轨道机制。

## 현 한반도 정세의 새로운 진전과 한중 협력의 중요성

### 当前半岛局势新进展与中韩合作重要性

왕전성

중국사회과학원 아태연구전략연구원 연구원, 중국주변전략연구실 주임

王俊生

中国社科院亚太与全球战略研究院研究员、中国周边战略研究室主任

# 현 한반도 정세의 새로운 진전과 한중 협력의 중요성

왕진성

(중국사회과학원 아태연구전략연구원 연구원, 중국주변전략연구실 주임)

1. 북한은 경제 건설 노선을 지속하고, '정면돌파전'을 통해 한반도 문제에서 주도권을 쥐고자 한다. 또한 경제난이 가중되면서 대화의 모멘텀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김정은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7시간에 걸쳐 보고를 진행했다. 보고 내용의 2/3 이상을 경제 건설에 할애했으며 '정면돌파전' 혁명 노선을 확립했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난은 여전하다. 첫째, 현재 대북 제재로 인해 수출을 통한 외화벌이 창구의 90%가 차단된 상태이고, 심각한 대중 무역적자로 인해 외화난이 가중되었다. 둘째, 코로나19로 인해 북한이 자발적으로 중국과의 국경을 봉쇄하면서 경제적 압박은 더욱 커졌다. 최근 또다시 홍수 재해가 발생해 경제난은 더 심각해졌다.

안보 환경 개선과 제재 완화 측면에서 미국과의 대화는 북한이 넘어야 할 산이다.

2.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출범 이후에도 기존의 대북정책은 그대로 유지되고, 단기적으로 북미대화 재개는 쉽지 않을 것이다.

바이든 집권 이후에도 북핵 문제 해결 방안에 비핵화, '최대 압박' 기조 유지, 평화적 해결 우선이 포함되어 근본적인 변화는 없을 것이다. 북핵 폐기를 고수하는 이유는 북한 정권에 대한 미국의 뿌리 깊은 불신과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다. 또한, 대화를 통한 해결을 주장하는 이유는 비용을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인권과 이데올로기를 강조하고, 비핵화 문제에서 남북 양국이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바이든은 '최대 압박'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내기 전까지는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의 고위급 대화, 특히 정상회담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3. 북미 견해차가 크기 때문에 양자 대화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고, 국제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북한과 미국은 비핵화와 체제 안전 보장의 순서를 놓고 이견을 보인다. 미국은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이전에 대북 제재를 완화하길 원치 않지만, 북한은 제재 완화를 비핵화의 전제 조건으로 삼고 있다. 앞으로 북한이 먼저 핵무기를 포기하거나 신고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정권의 안전이 걸린 문제이고, 이라크와 리비아의 사례에서 얻은 교훈이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미국 역시 북한에 먼저 안전을 보장하거나 '단계적(step by step)'으로 제재를 해제하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에는 북한이 '속임수'를 쓰고 있다는 인식이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있으며,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 미국과 논의할 의사가 있는 것은 '최대 압박' 정책 덕분이라고 여긴다. 이렇듯 북미 간 직접 대화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식의 난제에 빠져있다.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미 간 직접 대화를 추진하면서 국제 협력을 이끌어 내 북한과 미국의 신뢰 부족을 보완해야 한다. 한반도 문제는 북미 관계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지역 문제이기 때문에 또한 국제 협력을 필요로 한다.

**4. 중한 협력은 한반도 문제 해결에 필요한 국제 협력 추진에 필수적이다.**

중한 협력은 국제 협력의 중요한 부분일 뿐만 아니라 중미 협력과 그에 상응하는 국제 협력 추진에도 매우 중요하다. 첫째, 중한 양국 사이에는 비핵화 등 공동의 이익이 존재한다. 지금이 바로 비핵화를 실현할 마지막 기회이다. 비핵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한반도의 분단은 계속될 것이다. 둘째, 중한 관계의 내실을 다져 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다. 셋째, 중한 양국은 각각 북한과 미국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 중한 협력을 통해 북미 대화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된다. 넷째, 중한 협력으로 한반도 문제 해결과 중미 협력을 촉진할 수 있기에 중미 협력은 한국의 이익에도 어느 정도 부합한다.

바이든 집권 이후 한반도 문제 해결이 중미 양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국과 미국은 협력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국제 협력 추진에 있어 큰 기회이다. 따라서 이를 위해 중한 양국이 먼저 공감대를 형성해 공동 연구를 시작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 当前半岛局势新进展与中韩合作重要性

王俊生

(中国社科院亚太与全球战略研究院研究员、中国周边战略研究室主任)

**一、朝鲜继续推动经济建设路线，并采取“正面突破战”方式，试图掌握半岛问题主导权。同时也面临更大经济困难，对话动力增大。**

2019年12月，在朝鲜劳动党第七届第五次中央全会上，金正恩在会上做了长达七个小时多报告，报告2/3以上涉及到了经济建设，并制定了“正面突破战”的革命路线。

但同时，朝鲜经济困难局面并未改变。1、目前，制裁已封掉其能出口创汇的90%渠道，同时朝鲜对华贸易逆差严重，加大了外汇困难；2、因新冠疫情，朝鲜主动关闭了和中国的边境，经济压力更大。目前又遇到洪涝灾害，加重了经济困难。

在改善安全环境与缓解制裁上，与美国对话都是朝鲜不得不迈过的关卡。

**二、美国拜登政府上台后，不会改变既有的对朝政策，但是短期内对话前景堪忧。**

拜登上台后，在解决朝核问题的方向上不会有本质变化，这包括：无核化、坚持“极限施压”、优先和平解决。之所以坚持朝鲜弃核，主要基于美国对朝鲜政权根深蒂固的不信任，担心朝鲜会在某种情况下使用核武器。之所以坚持对话解决，主要基于成本考虑。

但是由于民主党强调人权与意识形态，而且受制于朝鲜半岛在无核化上暂时还没有取得实质性进展，拜登料将继续强化“极限施压”。同时，在没有看到实质性无核化取得进展前，拜登政府很可能不会贸然与朝鲜进行高层次对话、尤其是首脑会晤。

**三、朝美立场差距巨大，仅靠双边对话难以解决问题，应着力推进国际合作。**

朝美主要分歧体现在无核化与安全保障实现顺序。美国不想在朝鲜实质性无核化前放松对其制裁，但朝鲜将缓和制裁视为无核化前提。从前景看，朝鲜不可能先放弃核武器，甚至难以先申报，这涉及到政权安全，而且有伊拉克和利比亚教训在先。同样，美国也不可能先给朝鲜安全保障，甚至不可能“一步步”解除部分制裁。美国有根深蒂固“受骗心理”，并认为正是由于“极限施压”政策才让朝鲜愿意和美国对话讨论无核化。朝美直接对话已经陷入“鸡生蛋”“蛋生鸡”死结。



半岛问题解决出路在于继续推进美朝直接对话背景下，引入国际合作，这可弥补美朝信任缺失，同时由于半岛问题不仅是朝美关系问题，也是地区问题，也需要国际合作。

#### **四、中韩合作对于推进半岛问题解决所需要的国际合作至关重要。**

中韩合作不仅是国际合作的重要组成部分，而且对于推进中美合作以及相应的国际合作均至关重要。1、中韩共同利益，比如无核化等。当前是实现无核化的最后契机。如果不能实现无核化，那么半岛将继续分裂等。2、能进一步扩充中韩关系内涵，能进一步推动中韩关系发展。3、中韩合作有利于带动美朝对话，因为中韩可以分别做朝鲜和美国的工作。4、通过中韩合作带动半岛问题解决，也能带动中美合作，一定的中美合作符合韩国利益。

当前对于推进国际合作面临的机遇是，拜登上台后，考虑到朝鲜半岛问题符合中美两国共同利益，中美有望就此开展合作。因此目前可以考虑由中韩首先达成共识，为此可以启动中韩的联合研究。

## 중국과 한국의 대미 공공외교에 대한 고찰 中韩在华盛顿对美公共外交的观察

왕싱싱

상해 외국어대 한반도 및 아태전략연구센터 주임, 상해 외국어대 교수

王星星

上海外国语大学朝鲜半岛与亚太战略研究中心主任、教授

# 중국과 한국의 대미 공공외교에 대한 고찰

왕싱싱

(상해 외국어대 한반도 및 아태전략연구센터 주임, 상해 외국어대 교수)

최근 몇 년간 미국은 정당, 정치, 군사, 민생 방면에서 중국을 억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어떤 성향의 정부가 출범하든 관계없이 중국에 대한 공격과 억제라는 기본적인 방향을 고수했으며, 이러한 분위기는 현재 미국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중국은 현재 대미 공공외교 분야에서 커다란 도전에 직면해 전방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와 관련해서는 중국 대사관의 해외 출장 보고, 미국 특파원의 비자 문제 등에서 제약을 받고 있어 미국에서의 정보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미국 내에서는 중국 관련 문제에 대해 '신종 매카시즘' 성격의 백색테러 분위기가 형성되어 중미관계는 '신(新)냉전'을 앞두고 있다. 정·재계에서 시작된 이 분위기는 인문사회 분야까지 확대되고 있다. 미국이 지난 2, 3년간 대규모 싱크탱크에 의뢰한 프로젝트 중 대다수는 중국 첨단기술 기업에 대한 평가였으며, 평가의 목적은 공격 여부 결정이 아닌 정밀한 공격이었다. 근 1, 2년간 워싱턴 매사추세츠 애비뉴에 위치한 모든 싱크탱크는 중국과의 교류를 중단했다. SAIS와 GW 같은 곳에서 산발적으로 중국에 문을 열어놓고 있었지만 그마저 최근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일시 중단된 상태이다. 미국 하버드, MIT 첨단과학 실험실의 화교 집단은 배척과 의심을 받고 있다. 미국의 첨단기술 공격, 코로나19, 미국 내 학술 시장 포화라는 삼중고 속에서 향후 3~5년간 미국 거주 화교 과학자 중 수많은 이들이 고국으로 돌아와 일하게 될 것이다. 이는 중국 첨단기술 발전에 새로운 인재 보충을 의미하는 한편, 중미 과학 교류 중단의 화근이 될 수 있다.

대미 공공외교에 있어 한국은 중국에 비해 유리한 상황이다. 첫째, 한미 동맹을 통해 한미 양국은 공통된 견해와 가치관을 바탕으로 다방면에서 협력할 수 있다. 미 국무부의 한미 워킹그룹은 다른 워킹그룹에 비해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워싱턴에서의 한미 고위급 교류도 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중미간 대화 교류가 제한되어 있는 상황과 극명한 대비를 이룬다.

둘째, 한국국제교류재단(KF) 등을 통한 한국의 대미 공공외교는 미국의 한반도 관련 인

지 및 정책 결정에 영향을 준다. 필자는 KF가 많은 일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일례로 한국은 워싱턴의 CFR, Brookings, Wilson Center 등 영향력이 큰 싱크탱크에 모두 한국 연구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한국 석좌를 두고 있다. 또한 중국 정부의 대다수 한반도 문제 연구 기관 및 싱크탱크에 한국 KF의 자본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한반도 문제에 대한 미국의 이해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으며, 미국의 한반도 정책을 한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다. 이 역시 중국과 완전히 대비된다. 현재 미국은 중국의 자금 개입을 우려하고 있으며, 중국과 관계가 있다면 학술 교류마저 꺼리고 있다.

그러나 한국 역시 미국에서의 대미 공공외교는 제한적이다. 첫째, 현재 문 정부를 대하는 미국의 태도가 우호적이지만은 않다. 미국은 언제나 한국을 일본, 대만과 비교하며 한국이 중국과 너무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여긴다. 지난해 한국 정부 인사는 미국 방문 시 미국에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신호를 보내고자 했다. 1)한미 동맹 강화와 미국의 우려 해소 2)중한 교역 및 중한관계의 중요성 3)미국의 대북제재 완화와 북미관계 개선.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이는 중국이 중한관계가 한층 더 깊어지기를 바라면서도 중미간 균형 잡힌 관계에 있어 한국이 감내해야 할 것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한국은 미국에서의 공공외교 방면에서 몇몇 어려움을 겪고 있다. KEI가 최근 보고서에서 언급한 한국에 대한 미국의 인지와 사회적 여론 부분에 두 가지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다. 첫째, 상당수의 미국인은 한미 방위비 분담에서 한국의 분담금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둘째, 현재 미국은 대북제재 해제에 대한 여론의 기초를 형성하지 못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현재 문 정부의 대미 공공외교와는 정반대의 양상을 보인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 아는 바가 적고 연구 역시 낮은 수준이어서 오판의 가능성이 높다. 현재 한국은 대북 교류에 있어 효과적 방식이 부족하다. 중미관계가 순탄치 않은 현 상황에서, 중한 양국은 북한과의 왕래, 중미관계 개선 등 문제에 있어 상호 정보를 교환 및 대미 공공외교 관련 협력의 여지가 크다.

# 中韩在华盛顿对美公共外交的观察

王星星

(上海外国语大学朝鲜半岛与亚太战略研究中心主任、教授)

美国近几年党、政、军、民在遏制中国上达成高度一致，不管哪个政府当选，对华打击和遏制基本方向是确定的，目前华盛顿这种氛围尤其表现明显。

从中国来看，中国对美公共外交面临着巨大的挑战，全方面交流受到阻碍。官方上，中国大使馆出行报备、中国在美记者签证问题等收到制约，在华盛顿的信息沟通并不畅通。从美国国内在对华问题上形成“新麦卡锡主义”的白色恐怖气氛，中美关系处于“新冷战”前夜。这种氛围从政界、经济界扩展到了社会人文领域。美国在过去两三年给各大智库的委托项目里面，绝大多数是对中国高科技企业的评估，他们的目标在不是要不要进行打击，而是在怎样精准打击。最近一两年华盛顿的马萨诸塞街所有智库基本中断了和中国的交流项目，零星的还剩 SAIS 和 GW 仍然在向中国敞开大门，但是这扇门因为疫情原因暂时关闭；美国哈佛、MIT 高端科学实验室，华裔群体饱受排挤和质疑，在美国对华高科技打击、新冠疫情及美国国内学术市场饱和三重压力下，可以遇见未来三到五年左右，美国国内会有很多高端华人科学家回国服务。这一方面对于中国高科技发展有着补充新鲜血液的作用，另一方面为后续中美科学交往的断流埋下了隐忧。

韩国在对美公共外交上，和中国相比有着较大优势。首先，韩美同盟使得韩美基于共同理念和价值观基础上多方面合作。美国国务院的韩美工作组是所有工作组中比较高效的，韩美在华盛顿的高层交流保持一定频率，这与中美之间对话交流受阻情况形成鲜明对比。

其次，韩国通过 KF 等对美公共外交影响美国对朝鲜半岛的认知和决策。我知道 KF 做了大量的工作，比如韩国在华盛顿诸多智库 CFR、Brookings, Wilson Center 等影响较大的机构都设立 Korea program 的 Chair, 华府涉及朝鲜半岛问题研究机构和智囊，绝大部分都有韩国 KF 资金的注入，一定程度上影响着美国对朝鲜半岛问题的理解，在美国涉及半岛政策上，引导向着对韩国有利的方向发展。这与中国恰恰成为了对比，目前华盛顿唯恐中国资金的介入，包括学术交流等都不敢与中国有瓜葛。

韩国在华盛顿对美公共外交，也面临诸多局限。首先，目前华盛顿对于文政府并不是很友好。华盛顿总是把韩国放在日本、台湾地区进行比较，认为韩国和中国走得太近，我知道韩国政府官员在过去一年访美时，力图向华盛顿传递这样的信号：1) 坚定韩美同盟，消除美国疑虑；2) 中韩经贸和中韩关系对韩国至关重要；3) 缓和美国对朝制裁，改善朝美关系。对中国来讲，这意味着，中国希望中韩关系进一步提升的同时，也不得不考虑到韩国在平衡中美关系中的承受力。

其次，韩国在美公共外交也遇到一些难题。KEI 最近报告里面美国对韩认知的社会舆论报告里有两点值得关注，第一个就是有相当多的美国民众认为韩美军事分摊中，韩国需要负担更多的份额；第二个就是美国目前没有对朝鲜解除制裁的舆论基础。这两点来看都与文政府目前的对美公共外交目的背道而驰。华盛顿对朝鲜知之甚少，研究水平较低，容易误判。韩国当前对朝联系缺乏有效渠道，在中美关系复杂艰难情况下，中韩在对朝往来、协调中美关系等问题上，实现信息互换，在美公共外交事务操作层面上有很大合作空间。

동아시아의 평화와 발전과 한중관계  
东亚和平发展与中韩关系

김진호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金珍镐

檀国大学政治外交系教授

## 동아시아의 평화와 발전과 한중관계

김진호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동북아를 포함한 세계가 미중 마찰과 미국 선거로 시끄러운 시기, 동아시아의 평화와 발전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지는 미국,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역내국가들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동북아에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안보체제 유지 및 경제발전은 미국과 중국이 모두 관심을 갖아야 하는 문제이자 한국과 중국, 러시아, 몽골 그리고 북한 및 일본과의 협력이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다.

이러한 구도에서 한중관계는 보면, 한중 양국은 한국이 미국의 대리인이라는 입장으로 한국을 보지 말아야 하며 한국도 중국을 중미관계의 대립의 틀에서 중국을 보지 않아야 양국 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본다. 즉, 안보적 측면에서의 대립이라는 문제를 기존의 틀로 보더라도 이러한 상황을 장기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부분에서의 양국의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즉, 한반도의 문제와 한중관계, 북중관계를 미중관계의 틀로만 보지 말고 동북아의 평화와 발전이라는 의미에서 양국발전의 긍정적인(정열량) 방향과 내용을 찾아 그 분야를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중관계는 사회과학적 현황분석 이외에 인문적 유대를 통한 상호간 신뢰를 구축해 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인문적 교류는 경제적 교류 이상으로 오랜 기간의 인내와 노력으로 완성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바로 국제정치질서의 구조주의에 정치문화에 인문적 요소를 강화하며 멀리 보고 서로 유대를 강화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물이 고이면 물길이 생기듯, 물 방물이 바위를 뚫듯이 자연적인 부분과 꾸준하게 반복되는 인위적 노력이 경주되어야 서로의 신뢰의 길이 형성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중관계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중요시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첫째, 서로의 역사적 관계에서의 대립과 마찰을 이미지를 서로가 미래를 위해 같이 가야 한다는 경제 문화적 교류를 중시하면서 국제정치질서에서의 마찰을 줄여 나가야 할 것이다.

혹시, 부득이한 마찰이 생기더라도 서로간 소통을 중요시하여 서로의 속뜻이 서로에게 전달되어 갈등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서로간 쌓인 현재까지의 노력이 삭감되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 교류를 강화하면서도 위기관리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셋째, 한국과 중국의 특별한 환경에 대한 상대방의 이해를 효과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즉, 서로 문화적 유사성 문제로 서로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서로의 입장을 역지사지 하며 사고하며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는 정부 차원뿐만 아니라 민간 교류에서도 중시되어야 할 것이다. 양국의 민심이 이탈되면 양국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다.

넷째, 2차 세계대전 이후 형성된 동아시아 국제질서에서 양국이 처한 환경과 현황을 자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는 정부 차원뿐만 아니라 민간에까지 나쁜 영향을 미쳐 이를 다시 회복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다.

다섯째, 양국의 정부와 국민(인민)들은 인간중심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자극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서로 협력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민간교류를 확대해야 할 것이며, 동시에 경제적 효용이 있도록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경제적 교류도 동반되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여섯째, 양국은 각각 아직 완전한 통합(통일)이 완성되지 않은 상황이기에 이러한 민족과 국가의 문제로 서로를 자극하는 일이 외교와 안보차원에서 나타나서는 안된다. 즉, 서로 자극이 될 수 있는 언사와 행위는 정부나 민간차원에서도 마음에 담아두고 정부 담당자들과 민간교류로 원만한 해결점을 찾아가며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특히, 언론이나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국내정치적으로 상대방을 자극하는데 사용해서는 안될 것이다. 사회주의 체제나 자본주의체제나 민심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며 민심이 흥하면 양국 교류도 발전하기 때문이다.

일곱째, 국가간 교류에서 지성인(지식인)들과 일반인들을 교류를 증대해야 하며 서로간 많은 대화를 나누며 교류해야 하지만, 이 중에서 서로의 공동발전방향을 찾는데 노력해야 하며 상대방을 이용하거나 이를 자신들의 이익에 활용해서는 안될 것이다.

여덟째, 양국 정부간 여러 측면에서의 교류를 확대하며 이러한 교류가 안보문제를 다루지 못하더라도 이를 안보적 문제해결의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는 순수성과 진실성이 필요할 것



으로 본다.

아홉째, 서로 다른 문화와 환경을 이해해야 하면 양국의 교류에 경제적 손실이 생기더라도 장기적 교류로 더 많은 이익이 나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간 장기적 목적아래 교류를 확대하며 서로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열째, 한중관계의 많은 문제를 모두 국제정치적으로만 보지 말고 역내 협력해야 하는 운명 공동체의 입장에서 서로에 대한 아낌과 존중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한중관계는 이론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상존하고 있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와 현안도 많다. 그러나 양국관계에서 제3자에게 문제가 되는 않는 범위에서 양자간 교류를 확대해 나가는 것은 장기적인 양국관계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어려움과 아픔이 나의 아픔과 슬픔이라는 것을 천천히 이해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 东亚和平发展与中韩关系

金珍镐

(檀国大学政治外交系教授)

中美摩擦和美国大选使东北亚乃至世界陷入灰暗，此时若想维护东亚的和平与发展，中国和美国等东亚域内国家的合作就显得尤为重要。尤其是，东北亚地区的朝鲜半岛去核化、维护安全体系和经济发展需要中美两国的关注，同时也需要中国、韩国、俄罗斯、蒙古、朝鲜与日本的合作。

从这种格局来看，只有中国不将韩国视作美国的“代理人”，韩国也不从对立的中美关系框架内审视中国，中韩关系才能向前发展。从对立的安全问题框架中可以看出，双方应从长期解决问题的角度努力。

不要只从中韩关系、中朝关系和中美关系的层面分析朝鲜半岛问题，而要从东北亚和平与发展的层面谋求双方共同发展的利好（正能量）方向，并致力于发展此领域。

其次，除了从社会科学领域分析中韩关系，还要通过人文纽带，增进相互信任。但是，要认识到对比经济交流，人文交流需要更多的忍耐以及倾注大量心血。这意味着要在国际政治秩序的结构主义基础上加强人文因素，从长远的角度加强纽带。

积水成渊，滴水穿石。只有在自然因素的基础上，长期不懈努力，才能建立相互信任。因此，中韩关系要重视如下问题。

第一，摒弃历史长河中的对立与摩擦，为了双方的未来发展，重视经济与文化交流，并减少在国际政治秩序中的摩擦。若不可避免地产生摩擦，也要加强沟通，精准传递各自真正的意图，防止矛盾进一步升级。

第二，为了防止一直以来努力的成果大打折扣，加强沟通交流，并有效运营危机管理体系。

第三，谋求在特殊环境下，能够增进中韩两国相互理解的方法。中韩文化相近性高，从而要学会换位思考，谋定而后动，避免伤害对方自尊心。不仅政府要重视，民间交流时也要重视。一旦失去民心，就会难以拉近中韩两国关系。

第四，中韩两国所属环境和现状不能扰乱第二次世界大战之后建立的东亚国际秩序。因为这对政府乃至民间都会造成不良影响，且难以修复。

第五，中韩两国政府和国民（人民）要秉持“以人为本”的原则，避免激怒对方。为此，双方需要加强合作，扩大解决问题的民间交流，同时进行经济交流，从而实现经济领域的互利共赢。

第六，在中韩两国都没有实现完全统一（整合）的大背景下，不能以民族和国家问题，在外交和安全层面刺探对方。换句话说，无论是政府机构，还是民间组织都要规避可能惹怒对方的言行举止，并通过民间交流，和政府当局人士一起寻找妥善的解决方法，付诸于行动。

第七，扩大中韩两国专家学者（知识分子）与普通民众的交流，进行相互沟通和交流的同时，也要从中探寻共同发展的方向，切不可利用对方和只谋求单边利益。

第八，拓展中韩两国政府间的多领域交流，即使不涉及安全问题，也要保留其纯粹性和真实性，切不可成为解决安全问题工具。

第九，理解对方差异化的文化和环境，尽可能在即使双方交流中出现经济损失，也能通过长期交流，创造更多利益的长期目标下，增加交流和促进相互理解。

第十，不要只从国际政策层面看待中韩关系的大多数问题，还要从域内合作的命运共同体立场上珍惜和尊重对方。

理论上，中韩关系中有很多悬而未决的难题。但是，我认为在不涉及第三方的前提下，扩大双方交流有助于中韩两国关系的长期发展。为了加深相互理解，就要悲其所悲，痛其所痛。

바이든 집권 이후 미국의 대중국 경제·무역 정책과  
중국의 대응  
拜登执政以后美国的对华经济贸易政策与中国的对策

정환우

KOTRA 중국조사담당관

郑焕禹

大韩贸易投资振兴公社中国调查担当官

# 바이든 집권 이후 미국의 대중국 경제·무역 정책과 중국의 대응

정환우

(KOTRA 중국조사담당관)

- 바이든 정부 대중국 정책의 핵심은 다자주의(多邊主義, multilateralism)와 同盟 (alliance) 강화임. 본인은 다자주의와 동맹정책의 관계, 즉 차이에 주목 함
  - 다자주의는 무역에 관련된 개념으로서, ①WTO 및 複數國 FTA를 이용하고, ②국제 무역 규범을 위반하는 ‘불공정 무역행위’, 즉 수출보조금 지급, 기술이전 요구, 환율 조작, 사이버 절도, 지적권 침해를 강력 비판한다는 것임
  - 동맹정책은 외교안보 개념으로서 2개 혹은 소수 국가가 제3국(예를 들어 중국)에 공동으로 행동한다는 것임
  - 다자주의와 동맹정책은 이용 분야와 목적이 완전히 다름
  
- 바이든 정부는 상황에 따라 ①다자주의를 이용하거나, ②동맹정책을 이용하거나, ③이 둘을 혼용할 가능성이 있음.
  - 본인은 첫번째 즉 다자주의와 관련하여 중국이 나름의 경험과 대응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함.
  - 그러나 바이든 정부가 두번째(동맹정책 활용)나 세번째, 특히 세번째(다자주의와 동맹정책을 혼용(섞어서 이용))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음. 이 경우 상황이 복잡하고 어려워질 수 있음.
  - 이러한 가능성과 중국정부의 대응에 대한 중국 전문가의 견해를 듣고 싶음

# 拜登执政以后美国的对华经济贸易政策与中国的对策

郑焕禹

(大韩贸易投资振兴公社中国调查担当官)

○ 拜登政府对华政策的核心是强调多边主义 (multilateralism) 和同盟 (alliance)。

本人关注多边主义和同盟政策的关系，即差异

- 多边主义作为与贸易相关的概念，指①利用WTO和多边FTA，②强烈批判违反国际贸易规范的“不公正贸易行为”，即支付出口补助金，要求技术转让，操纵汇率，网络盗窃，侵害知识产权
- 同盟政策作为外交安全概念，指两个或者少数国家对于第三国（例如，中国）采取共同行动
- 多边主义和同盟政策的利用领域以及目的完全不同

○ 拜登政府有可能依据不同的情况，①利用多边主义，或者②利用同盟政策，或者③混合利用两者

- 本人认为，对于第一种政策，即多边主义，中国具备一定的经验和应对能力
- 但是，拜登政府有可能推进第二种（利用同盟政策）或者第三种（多边主义和同盟政策混用）政策。这种情况比较复杂而且困难
- 针对这种可能性以及中国政府的应对，想听取中国专家的见解